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

# 퀴어로드

## 우리의 행진이 만드는 길

---

2022. 5. 21. 청어람홀 (+온라인 중계)

주관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문의 : [queerforum.kr@gmail.com](mailto:queerforum.kr@gmail.com)  
후원 : 국민은행 408801-01-317159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주관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주최 성소수자지원센터, 무지개문화재단



# 퀴어로드

우리의  
행진이 만드는 길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2022.05.21.(토)

10:00~19:00

단 하루의 포럼, 3개의 세션!  
청년, 각 영역의 조직,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앞으로의 5년

**신청** 공지글에 있는 신청란 확인

**비용** 오프라인 - 15,000원 (\*책자 포함)  
온라인 중계 - 자율 후원

**장소** 낙원상가 청어람홀 (+온라인 중계)

2022.05.21.(토)

10:00~19:00

낙원상가 청아람홀 (+온라인 중계)



# 퀴어로드

우리의  
행진이 만드는 길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 세션 1 10:00~12:30

###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 : 정체성·커뮤니티·사회적 욕구

- 사회**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발제** 정체화과정, 커뮤니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청년 성소수자 삶의 양상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패널** 윤덕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퓨터대)  
시엘 (언니네트워크)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진인 (부산퀴어문화플랫폼 홍예당)  
정용림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희정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 세션 2 13:30~16:00

### 내 일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변화 : 성소수자 운동 조직방법론

- 사회**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패널** 김유미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권수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린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박도담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디름)  
송성윤 (성공회대학교 모두의 화장실 공동대책위원회)

## 세션 3 16:30~19:00

###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 : 우리가 보내 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 사회**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무지개행동 집행위)  
무지개행동의 5년간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무지개행동 집행위)
- 토론**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타리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포럼이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됩니다. 오랜만의 오프라인 포럼이기에 예년에 비해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1일,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다루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퀴어로드 - 우리의 행진이 만드는 길>이라는 슬로건대로 이번 포럼에서는 성소수자 운동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청년의 정체성·커뮤니티 경험과 욕구를 살펴보는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 정체성·커뮤니티·사회적 욕구> 세션, 학교와 일터, 지역사회 등 일상의 공간에서의 변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를 이야기하는 <내 일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변화 - 성소수자 운동 조직방법론> 세션, 새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5년, 그리고 향후 5년의 성소수자 운동의 이야기 방향을 모색하는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 - 우리가 보내 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세션, 이렇게 3가지 세션을 통해 그간의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운동의 역할을 그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럼에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세션 한국어 문자와 수어통역을 진행했습니다. 통역을 담당해주신 AUD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참여자들께 항상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와 운동의 고민과 성찰을 담은 제15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일동

# 프로그램/목차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로드-우리의 행진이 만드는 길
10:00-12:30	<p>■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 - 정체성·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사회 / 심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p> <p>발제 / 정체화과정, 커뮤니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청년 성소수자 삶의 양상   정성조(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p> <p>토론 / 김윤덕(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시엘(언니네트워크)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인(부산퀴어문화플랫폼 흥예당) 정용림(청소년성소수자위기기지원센터 땀동) 희정(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p>	세션 1
12:30-13:30	점심시간	
13:30-16:00	<p>■ 내 일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변화 - 성소수자 운동 조직방법론 사회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p> <p>발제 / 김유미(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이상권(전국금속노동조합) 린다(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박도담(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음) 송성윤(성공회대학교 모두의 화장실 공동대책위원회)</p>	세션 2
16:00-16:30	휴식	
16:30-19:00	<p>■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 - 우리가 보내 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사회 /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p> <p>발제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무지개행동의 5년간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지개행동 집행위)</p> <p>토론 / 류민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타리(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p>	세션 3

#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

## 정체성·커뮤니티·사회적 욕구

## 우리가 청년 성소수자를 다루는 이유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청년’ 단위가 세션, 발제, 토론을 맡은 경우는 왕왕 있었다. 보통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가 대학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이나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는 세션이었다. 그러나 그때 세션을 회상하자면, 분명 청년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학 현장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딱히 그것이 청년의 문제로 수렴되진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정책은 그저 어린 연령대에 대해 여러 제한과 규제를 완화해주는 복지제도에 그치곤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의 기준을 완화한다던지, 이자를 면제한다던지, 주거 청약 우선순위를 높여준다던지, 결혼을 하면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던지, 기업에 청년 인턴쉽을 쓰면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견 청년 당사자에게 유리해보이는 지원정책들이다. 때로는 국방 복지 정책, 여성징병제 등이 청년정책이라고 제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정책들에는 심각한 난점이 있다. 청년정책이 전제하는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작금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청년은 어떤 정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청년은 성소수자가 아닐 것이고, HIV 감염인이 아닐 것이고, 장애인이 아닐 것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닐 것이고, 이주민과 난민이 아닐 것이다. 때로는 여성도 아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청년세대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진 기성세대의 대비되는 불쌍한 세대일 뿐이다. 청년세대 내 계급, 지위, 권력의 차이는 전혀 다뤄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명되어 구성된 청년 이미지로 인해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힘없는 청년들에게 편이 되어주는 멋있는 ‘나’, 즉 나이 든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이 아닐까?

우리가 청년 성소수자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청년기가 인간 일반에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은 아니다. 반대로 청년세대를 동질적인 집단인 것처럼 다루는 기존의 청년담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청년을 다룰 필요가 있다. 청년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의 부자들도 있다. 우리의 계급적 위치는 동등하지 않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접근가능해진 복지혜택만으로는 그 계급격차, 빈부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회 곳곳에 견고히 존재하는 이성애규범과 성별이분법을 두고, 성소수자 청년과 비성소수자 청년이 같은 청년기를 보낸다고 말할 수 없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치가 범람하면서도, 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다음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로서, 청년 내의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된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였다.

본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청년과 일반 청년 인구의 차이점도 드러났지만, 동시에 성소수자 청년 안에서의 차이점들도 드러났다. 성소수자 청년 안에서의 차이는 정체성 집단 별 차이뿐 아니라, 세대,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각한 건강위기, 평등한 시민권에 대한 욕구, 일상 속에 겪는 차별환경, 사회에 대한 인식들은 꽤 공통적인 것도 많았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청년 생애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리고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언어로, 어떤 관점에서 다가가야 할까? 오늘 인권포럼에서는 정체성과 커뮤니티, 사회정치적 욕구를 중심으로 청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인사말을 공유한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표 한성진입니다.

2022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에 맞춰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해 8월, 다음이 진행한 조사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3,911명, 면접조사에 참여해주신 50명의 청년 성소수자 분들, 그리고 조사 과정에 지지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다음의 키워드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이었고, 올해의 키워드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기'입니다. 다음이 이처럼 청년 성소수자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다음 구성원의 연령대가 청년에 해당해서만은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청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청년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성소수자는 집, 학교, 기업, 군대, 종교 시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 가족, 친구, 파트너, 동료, 업무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소간 특수한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청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삶은 철저히 비가시화된 채로 말입니다. 다음 구성원들이 단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청년 성소수자의 인식과 경험을 드러내는 조사를 계획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청년 성소수자. 여느 청년들이 그렇듯 먹고 살기 어려운 시국에서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경제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가로막혀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성소수자들은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단히 탐색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숨기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청년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점이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평등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3,911명. 한국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성소수자 대상의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조

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당초 예상보다도 청년 성소수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문참여자의 절반은 추가적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연구진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아쉬움도 큼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일회성의 사건으로 남기지 않고 앞으로 후속 조사는 물론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입니다. 면접참여자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성소수자 모임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 축제와 행사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는 술집과 클럽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안도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가 지워지고 배제된 현실에서 성소수자가 느끼는 이 안도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함께 곱씹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삶 속 이야기가 담긴 본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도 많은 청년 성소수자의 바람과 함께 실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7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한성진

# 정체화과정, 커뮤니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청년 성소수자 삶의 양상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2022.05.21. 성소수자 인권포럼

## 청년 성소수자의 정체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 공유

### 연구수행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김보미, 심기용, 정성조, 한성진

### 발표자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01 /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 인식 연구>(2020)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은 3.23점으로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3년 62.1%에서 2020년 5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과자'(69.4%) 다음에 위치함
- 성소수자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함
  -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65.3%는 최근 12개월 동안 성적체성 때문에 차별을 경험함

## 01 / 연구 배경과 목적

- 그러나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함
  -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이자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태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옴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2014)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를 제외하면 국가 기관에서 실시한 관련 조사는 사실상 부재함
- 최근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 속에서도 성소수자 청년은 소외됨
  - 낮은 연령대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당사자들의 정체화 시기도 빨라지는 추세임
  - 그러나 취업이나 혼인, 주거를 내용으로 삼는 청년 정책에서 ‘인권’이나 ‘차별’은 함께 논의되지 않음. 이성애적 생애주기를 따르지 않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은 ‘청년’에 포함되지 못함

## 01 / 연구 배경과 목적

- ‘청년’이자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욕구가 존재함
  - 흔히 ‘청년 문제’로 논의되는 취업과 주거 등에 있어서 청년 성소수자도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더불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성소수자들 사이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면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체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물론 사회적 환경 및 정치적 욕구, 건강과 심리 상태, 구직과 직장 경험, 주거 독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01 /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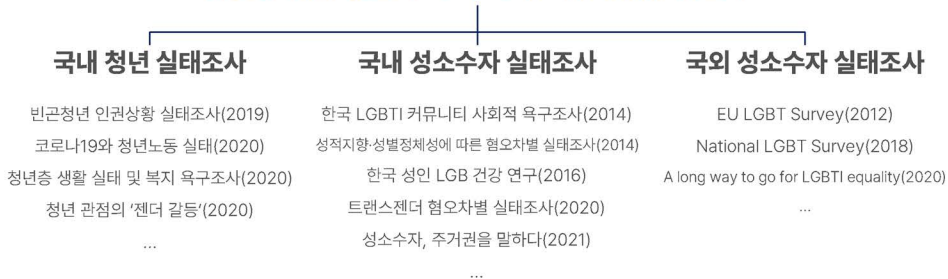


- 설문 및 면접 조사를 병행해 다각도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를 파악함
- ‘청년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스스로 성소수자로 정체화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
  -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며, 최근 실시된 청년 실태조사에서의 일반 청년 집단과 본 조사의 청년 성소수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범주를 통일함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괄적인 설문조사 문항지를 개발함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제목	년도	발주기관	수행기관(연구팀)	연구방법	연구 규모	연구 대상	제목	년도	발주기관	수행기관(연구팀)	연구방법	연구 규모	연구 대상
한국 레즈비언 인권 상태에 관한 연구	2004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유익재단	양적 연구	샘플 561	2~30대 레즈비언	이르 만드는 몰락래: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침해적 환경 구적을 위한 기초조사	2016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밀음	질적 연구	면담 15	청소년 성소수자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안전상황 실태조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	인문대학교 의과대학	혼합 연구	샘플 255, 면담 16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 사회적 실태조사	2016	-	정형석, 박수정, 김민정, 김민우	양적 연구	샘플 1,072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2006	-	성문화인권센터, 한국성문화연구소	혼합 연구	샘플 78, 면담 38	MTF/FTM 트랜스젠더	한국 성인 LGB 건강 연구	2016	-	한국가정인권운동연합, 한국사이키아트리컬 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보육가족복지연구소	양적 연구	샘플 2,361	만18세 이상 LGB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2006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양적 연구	샘플 198	레즈비언	김영미(HIV/AIDS) 의료지원 실태조사	2016	국가인권위원회	정혜영,정영진	혼합 연구	샘플 208, 면담 18	HIV/AIDS 감염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강병철, 김지혜	혼합 연구	샘플 135, 면담 6	만13세~19세 성소수자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	2017	-	대한보육가족복지연구소	양적 연구	샘플 278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2007	-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	양적 연구	샘플 386	-	한국 HIV 낙인 자료 조사 공동 기획단	2017	UN AIDS	한국 HIV 낙인 자료 조사 공동 기획단	혼합 연구	샘플 104, 면담 15	만18세 이상 HIV/AIDS 감염인
레즈비언 반포층 실태조사	2009	-	강석호, 김태부지, 이나경	-	-	-	“나, 성소수자 노동자” 두 번째 이야기	2017	-	활동하는 성소수자인 연애, 노동권팀	질적 연구	면담 8	-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및 지원 실태조사	2009	질병관리본부	인문대학교 의과대학	혼합 연구	샘플 368	HIV/AIDS 감염인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국가인권위원회	송영미(사대), 김희정(사대)	양적 연구	샘플 591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노동권 기초조사	2010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노동운동성소수자지원팀	질적 연구	면담 10	게이, 레즈비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202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중앙대학교 신학대학원	질적 연구	면담 25	만13세~만25세 성소수자
“나, 성소수자 노동자” 첫 번째 이야기	2011	-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노동권팀	질적 연구	면담 6	성소수자 노동자	성소수자, 조카연애, 열애	2021	-	성소수자 조카연애, 열애팀	혼합 연구	샘플 949, 면담 17	만18세 이상 성소수자
성적 지향 차별 피해에 따른 혐오차별 실태조사	2014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가정인권운동연합	양적 연구	샘플 1,168	청소년, 성인 성적 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립과 고통 기초조사	2021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밀음	혼합 연구	샘플 153, 면담 10	청소년 성소수자
한국 LGBT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2014	한국가정인권운동연합, 한국사이	SOGI연립연구소	혼합 연구	샘플 3,159, 면담 49	LGBTI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여섯 개의 대주제로 구성됨
-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구성한 뒤 외부 전문가(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및 관련 주제 연구자 등) 6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함

항목	주요내용
정체성과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li> <li>• 성별 정체 및 관련 의류의 조직</li> <li>• 정치화 시기 및 정치화 과정의 어려움</li> <li>• 커뮤니티의 시기/대상</li> <li>• 커뮤니티의 인종과 차별 경험</li> <li>•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및 트랜스혐오</li> <li>• 언어 관계 및 파트너십 욕구</li> <li>•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 및 바라는 점</li> <li>• 성소수자 커뮤니티 연결감</li> </ul>
혐오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소수자에서 출은 점</li> <li>• 최근 1년 차별 경험</li> <li>• 차별 경험에 대한 대응</li> <li>• 군복무 경험 및 차별 경험</li> </ul>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 평가</li> <li>•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및 정치적 영역</li> <li>• 선호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li> <li>• 정치성향</li> <li>• 인권단체 후원 여부 및 이유</li> <li>• 페미니스트 여부 및 페미니즘 외에 선호도</li> <li>• 코로나19로 인한 영향</li> </ul>
건강과 심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 상태 및 행복도</li> <li>• 우울증 및 자살</li> <li>• 장애 및 HIV/AIDS 상태</li> <li>• 성관계 및 약물 사용 경험</li> </ul>
노동 및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 경험</li> <li>• 현재 취업상태 및 고용 형태</li> <li>•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li> <li>• 직장에서의 욕구</li> </ul>
가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소득 및 가구 구성 형태</li> <li>• 주거 독립 여부 및 요인</li> </ul>
인구사회학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연도, 최종학력, 직업, 수입, 혼인상태, 거주지역, 종교, 계층 인식 등</li> </ul>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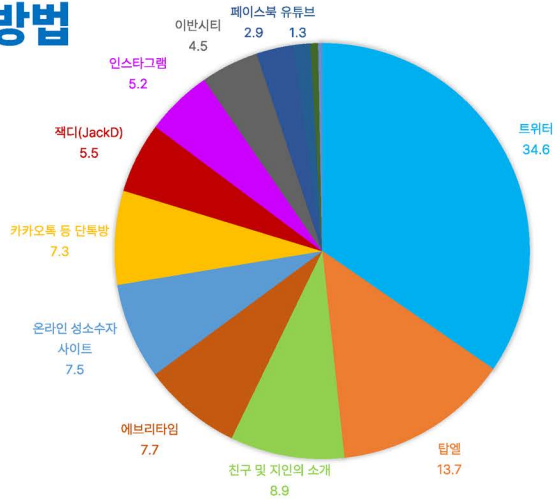
- 켈트릭스(Qualtrics)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1차 2021년 8월 11일 ~ 8월 31일(21일간)  
2차 2021년 9월 2일 ~ 9월 7일(6일간)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대상
  - 홍보 채널: 온라인 소셜미디어,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이트, 성소수자 데이팅 앱, 에브리타임 내 LGBT 게시판, 성소수자 유튜브 채널 등
  - 설문 보상: 4,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기프트콘) 제공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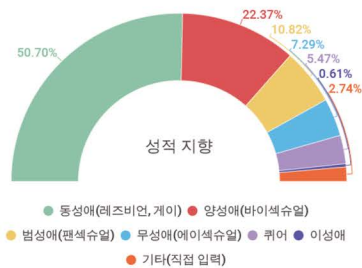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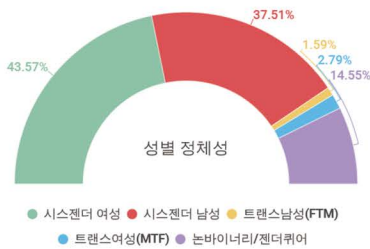
- 총 3,911명의 설문조사 유효응답을 확보함
  - 설문조사 응답 링크에 접속한 참여자는 총 6,764명
  - 이들 중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32명), 본 연구의 참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1,218명),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중도 이탈자(1,603명)를 제외한 3,911명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음

## 02 /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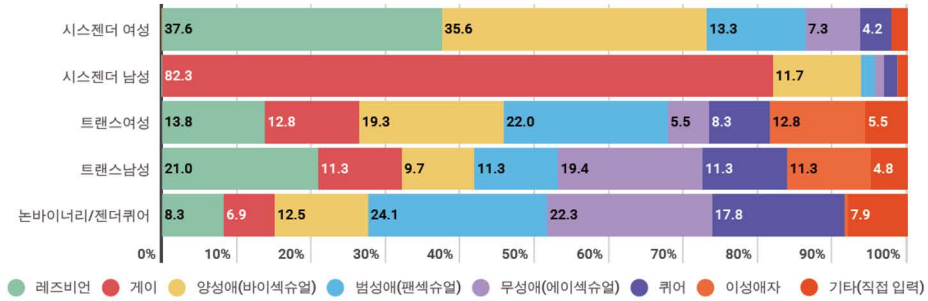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의 유입 경로로는 트위터(34.6%)가 가장 많으나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임
  - 소셜미디어(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외에도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탑엘, 잭디)과 커뮤니티 사이트(이반시티, 디씨 성소수자 갤러리 등)를 통한 유입 비중이 높음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 청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짐
- 응답자 중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4.6%, 팬섹슈얼 10.8%, 에이섹슈얼 7.3%, 퀴어 5.5% 등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n=2,391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n=3,911
<b>성별정체성</b>		
시스젠더 여성	64.3	43.6
시스젠더 남성	25.9	37.5
트랜스여성	2.6	2.8
트랜스남성	3.2	1.6
논바이너리/젠더퀴어**	4.0	14.6
<b>성적지향</b>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58.5	50.7
양성애(바이섹슈얼)	34.7	22.4
범성애(팬섹슈얼)	2.3	10.8
무성애(에이섹슈얼)	0.7	7.3
퀴어***	-	5.5
이성애	3.3	0.6
기타(직접입력)****	0.5	2.7

표 3.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 비교

\* 해당 조사를 비교군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의 응답자 3,159명 가운데 청년(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2,391명의 분목 대상으로 함

\*\* 2014년 조사에서는 '논바이너리'라는 항목으로 포함됨

\*\*\* 2014년 조사에서는 '퀴어'로 포함되지 않음

\*\*\*\* 2014년 조사에서는 '퀴어/기타'라는 항목으로 포함됨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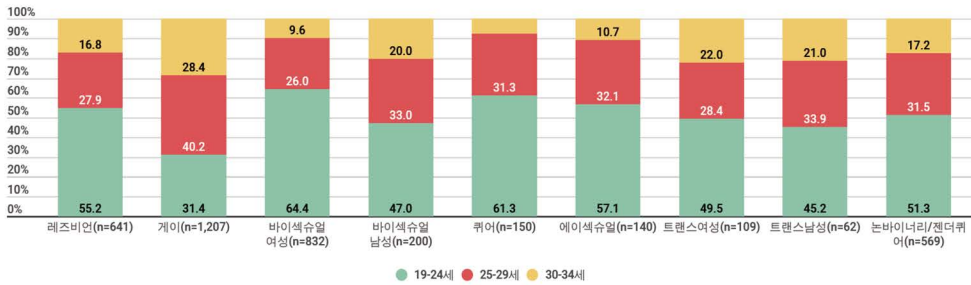
• 총 9개의 분석 범주로 분류함

- 1) 레즈비언(n=641)
- 2) 게이(n=1,207)
- 3) 바이섹슈얼 여성(시스젠더)(n=832)
- 4) 바이섹슈얼 남성(시스젠더)(n=200)
- 5) 퀴어(시스젠더)(n=150)
- 6) 에이섹슈얼(시스젠더)(n=140)
- 7) 트랜스여성(n=109)
- 8) 트랜스남성(n=62)
- 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n=2,391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사회의 욕구조사」 * 욕구 및 실태 조사 n=3,911
<b>성별정체성</b>		
시스젠더 여성	64.3	43.6
시스젠더 남성	25.9	37.5
트랜스여성	2.6	2.8
트랜스남성	3.2	1.6
논바이너리/젠더퀴어**	4.0	14.6
<b>성지향</b>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58.5	50.7
양성애(바이섹슈얼)	34.7	22.4
범성애(팬섹슈얼)	2.3	10.8
무성애(에이섹슈얼)	0.7	7.3
퀴어***	-	5.5
이성애	3.3	0.6
기타(직접입력)****	0.5	2.7

표 3. 성별정체성 및 성지향 분포 비교  
 \* 해당 조사를 비교군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의 응답자 3,159명 가운데 청년(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2,391명의 분석 대상으로 삼음  
 \*\* 2014년 조사에서는 '논바이너리'라는 항목으로 포함됨  
 \*\*\* 2014년 조사에서는 문항으로 포함되지 않음  
 \*\*\*\* 2014년 조사에서는 '헷스저닝/기타'라는 항목으로 포함됨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 03 / 연구 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전체(N)=3,911				전체(N)=3,911			
		N	%		N	%	
연령대	19-24세	1,909	48.8	종교	불교	290	7.4
	25-29세	1,270	32.5		가톨릭(천주교)	291	7.4
	30-34세	732	18.7		개신교	380	9.7
고졸	718	18.4	무교		2,905	74.3	
최종학력	대학교 재학	1,457	37.3	취업상태	취업자	1,621	41.5
	대학교 졸업	1,329	34		학생	1,694	43.3
	대학원 이상	407	10.4		무직, 주부, 구직 중	596	15.2
혼인상태	미혼/비혼	3,884	99.3	주관적 계층	상층	99	2.5
	기혼	24	0.6		중상층	735	18.8
	이혼/사별/별거	3	0.1		중중층	1,437	36.7
			중하층		1,284	32.8	
			하층		356	9.1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정체성 인지 시기 및 수용 시기



정체성 인지 시기

**평균 14.7세**



정체성 수용 시기

**평균 17.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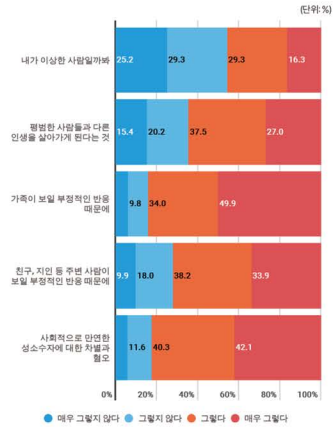
단위: 세, 만나이	정체성 인지 시기	정체성 수용 시기
전체(n=3,911)	14.7	17.8
레즈비언(n=641)	14.8	17.3
게이(n=1,207)	13.4	17.2
바이섹슈얼 여성(n=832)	16.1	18.2
바이섹슈얼 남성(n=200)	15.5	18.7
퀴어(n=150)	15.4	17.7
에이섹슈얼(n=140)	17.2	19.8
트랜스여성(n=109)	13.0	19.4
트랜스남성(n=62)	13.8	17.6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4.3	18.0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 정체화 과정에서의 고민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은 중학생 때였고, 그리고 이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이걸 게이라고 부르다가나 이런 걸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다가나. (...) 근데 이런 전반적인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 뭔가 고민하고 이런 거에 큰 저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3세)

중학교 때쯤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하면은 하리수 같이 여성으로 수술을 하신 분밖에 가시화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얘기해도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되는 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 커밍아웃 시기 및 커밍아웃 대상



**19.2세**

평균 최초 커밍아웃 시기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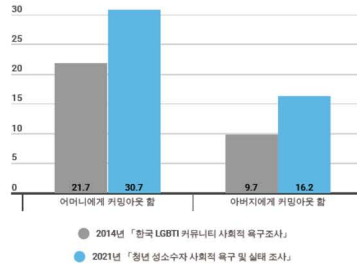
살면서 커밍아웃 한 적 없음

단위: 세, 만 나이	전체(n)=3,911	%
전체(n=3,451)	19.2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43.9
레즈비언(n=641)	18.4	성소수자 친구, 동료 33.6
게이(n=1,207)	19.8	어머니 3.3
바이섹슈얼 여성(n=632)	19.0	부모님을 제외한 (핵)가족 구성원 2.6
바이섹슈얼 남성(n=200)	20.0	심리상담 전문가 1.4
퀴어(n=150)	18.8	의료진 등 건강 관련 전문가 0.5
에이섹슈얼(n=140)	20.8	아버지 0.4
트랜스여성(n=109)	20.1	그 외 친척들 0.4
트랜스남성(n=62)	18.3	교사 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8.8	종교인 0.2
		기타 1.7
		해당사항 없음(커밍아웃 한 적 없음) 11.8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부모에 대한 커밍아웃 여부

전체(n)=3,451 (단위: %)	커밍아웃 했음*	커밍아웃 하지 않음	해당없음
어머니	30.7	63.6	5.7
아버지	16.2	74.8	9
형제자매	37.1	52.0	10.8
비성소수자 친구	78.0	20.2	1.8
직장 동료	15.2	64.8	19.9
직장 상사	7.3	71.3	21.5
심리상담 전문가	26.4	48.0	25.7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	17.9	58.6	23.6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커밍아웃에 대한 가족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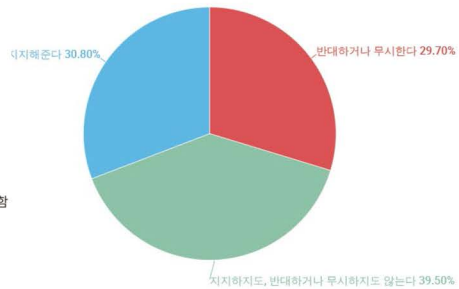


**29.7%**

커밍아웃을 하자 이를 반대하거나 무시함

**77.3%**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 모른척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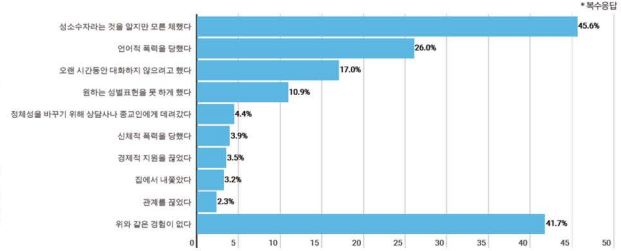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어머니께서 "자기는 괜찮다"면서 "남자 좋아 하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술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먹다가 "사실 맞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막 누구 죽은 것처럼 우셔 가지고. (참여자 28, 시스템더 남성 게이, 2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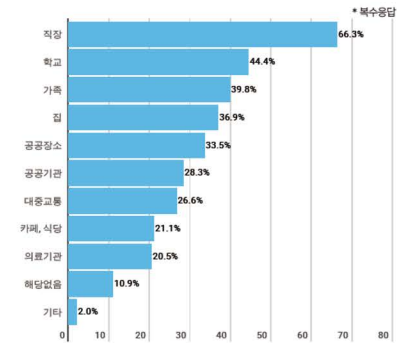
언제 한번 집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지?" 그러니까 "아유 그럼 언제나 네 편이지". "엄마가 내 편이 아니게 될 때는 언제일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네가 동성애자일 때" 이러시는 거예요. (참여자 17, 시스템더 남성 게이, 32세)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66.3%**  
직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림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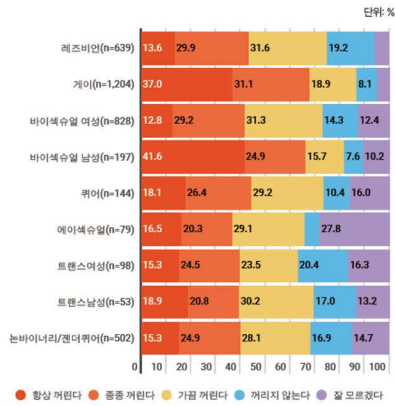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 기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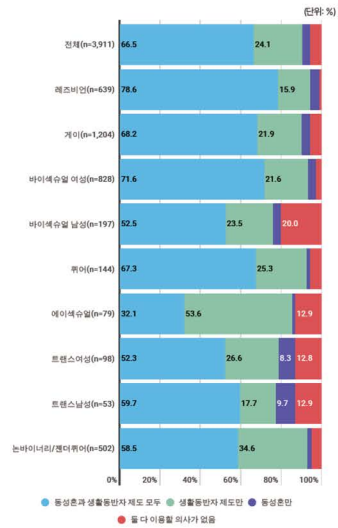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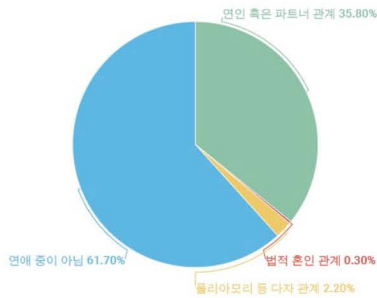
77.3%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을 꺼림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연애 상태 및 파트너십 제도 관련 욕구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 정체성의 중요도



**88.2%**

내가 성소수자인 것은 나에게 중요함

저는 제가 성소수자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소수자라서 불행한 일을 훨씬 많이 겪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성소수자나 다른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게 되었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세)

가능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소수자의 입장에서 있어 보니까,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상처가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할 때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고. (참여자 36,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7세)

단위: %	중요하다*
전체(n)=3,911	88.2
레즈비언(n=641)	90.6
게이(n=1,207)	92.4
바이섹슈얼 여성(n=832)	82.7
바이섹슈얼 남성(n=200)	79.5
퀴어(n=150)	82.0
에이섹슈얼(n=140)	80.7
트랜스여성(n=109)	89.0
트랜스남성(n=62)	9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90.7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61.4%**

나는 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낌

단위: %	동의한다*
전체(n)=3,911	61.4
레즈비언(n=641)	62.1
게이(n=1,207)	64.5
바이섹슈얼 여성(n=832)	59.7
바이섹슈얼 남성(n=200)	48.5
퀴어(n=150)	55.3
에이섹슈얼(n=140)	41.4
트랜스여성(n=109)	58.7
트랜스남성(n=62)	64.5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7.7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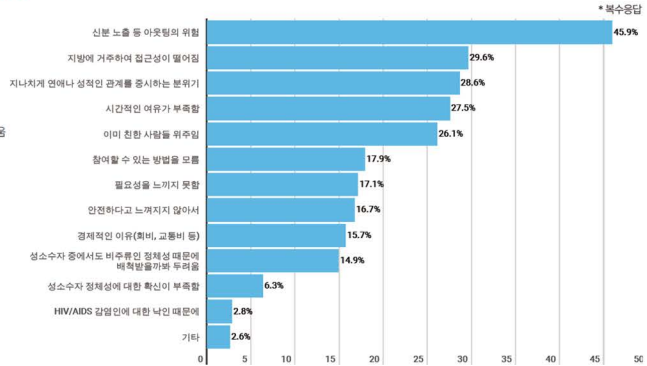
**75.4%**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57.6%**

지방에 거주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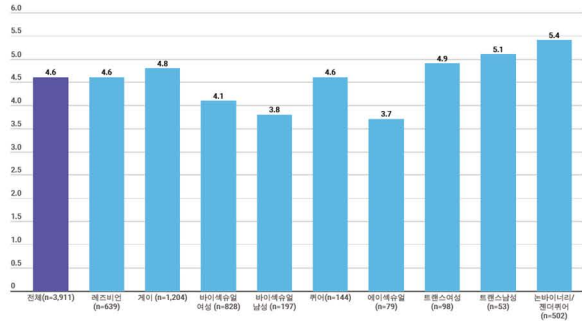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대

단위: %, 복수응답	전체 n=3,837	레즈비언 n=633	게이 n=1,198	바이섹슈얼 여성 n=915	바이섹슈얼 남성 n=109	퀴어 n=149	에이섹슈얼 n=129	트랜스 여성 n=105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 퀴어케어 n=563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친교	68.0	73.3	72.1	67.9	64.2	63.8	46.5	50.5	59.7	65.4
내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	57.3	57.0	52.4	60.2	49.2	61.1	57.4	61.0	58.1	64.7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38.7	37.6	42.3	37.1	43.0	44.3	31.0	30.5	30.6	35.9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	35.6	27.8	28.7	34.8	36.3	41.6	56.6	52.4	51.6	48.1
연인을 찾고 사귄 수 있는 공간	33.4	48.0	40.0	35.8	21.8	25.5	5.4	13.3	24.2	16.7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려고	17.8	13.3	12.5	18.7	10.4	20.1	27.9	23.8	16.1	31.6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기 위해서	9.1	4.1	18.4	3.4	20.7	6.7	0.0	7.6	3.2	3.2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7.5	8.1	6.3	6.4	7.3	6.7	11.6	10.5	12.9	9.2
삶의 롤모델을 찾기 위해서	1.9	1.1	1.8	1.1	2.6	1.3	3.9	3.8	1.6	3.4
기타	0.9	0.5	0.4	1.2	2.6	0.7	1.6	1.9	1.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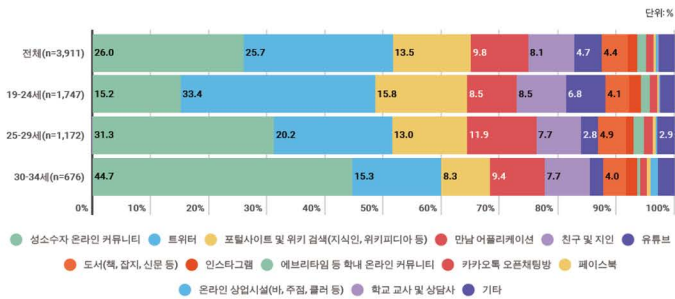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인간관계에서 성소수자 지인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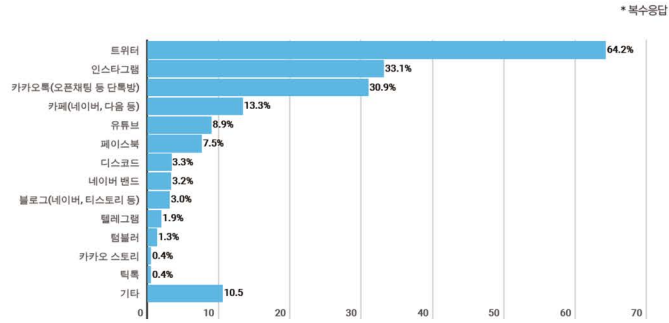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활용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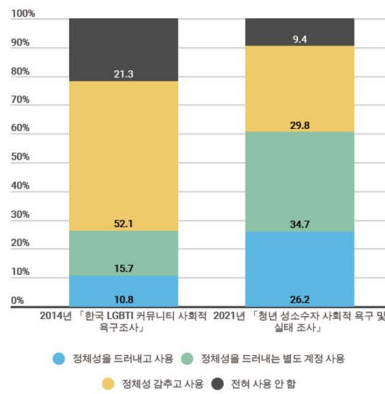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 정체성의 공개 여부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단위(%), 복수응답	전체 n=3,911	레즈비언 n=641	게이 n=1,207	바이섹슈얼 여성 n=832	바이섹슈얼 남성 n=200	퀴어 n=150	애이섹슈얼 n=140	트랜스 여성 n=109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 전미유어 n=569
성소수자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42.8	48.0	44.3	42.3	36.5	43.3	21.4	34.9	35.5	43.9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제공	40.9	47.7	41.0	40.1	27.5	40.0	26.4	32.1	25.8	46.0
장차상, 연애 등과 관련된 상담	36.9	36.3	38.4	38.5	40.0	35.3	29.3	33.9	40.3	33.4
인권침해나 차별 구제	34.2	29.5	34.1	33.1	22.5	42.7	30.0	43.1	32.3	42.5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인프라 마련	31.1	28.5	27.3	30.5	27.5	34.0	38.6	33.0	27.4	41.7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	27.7	26.4	28.7	22.6	21.5	26.0	20.7	50.5	43.5	32.9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	21.3	12.9	22.4	11.8	24.0	22.0	11.4	65.1	50.0	32.0
세대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17.0	18.1	15.2	16.7	14.0	19.3	10.0	12.8	17.7	22.7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금 지원	13.6	11.1	16.2	11.2	10.0	13.3	8.6	14.7	9.7	17.0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구축 제공	13.1	9.7	13.4	10.6	12.0	19.3	7.9	11.0	16.1	19.9
기술이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센터 운영	11.3	10.1	7.1	10.7	7.5	17.3	12.9	18.3	17.7	19.7
잘 모르겠음	13.1	10.9	14.4	12.3	20.5	17.3	25.0	11.9	6.5	8.4
기타	0.8	0.6	1.2	0.7	0.5	1.3	0.0	0.0	1.6	0.9

## 04 / 정체성과 커뮤니티

성소수자라서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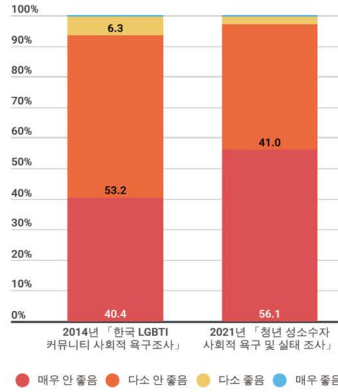
## 05 / 사회정치적 욕구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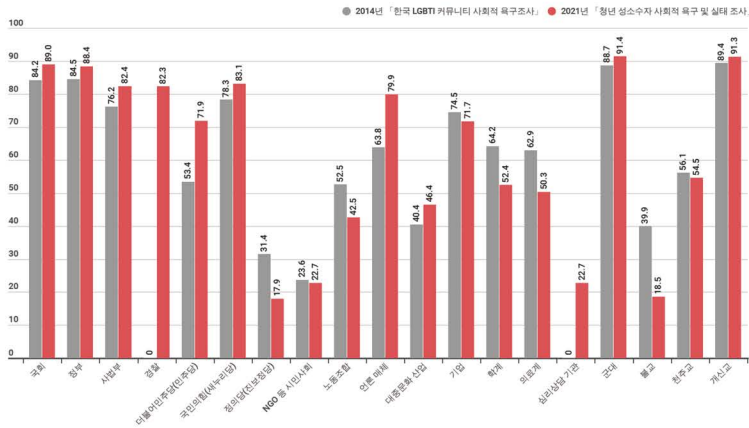
**97.1%**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살기에 좋지 않음



## 05 / 사회정치적 욕구

지역(영역)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호도





## 05 / 사회정치적 욕구

가장 시급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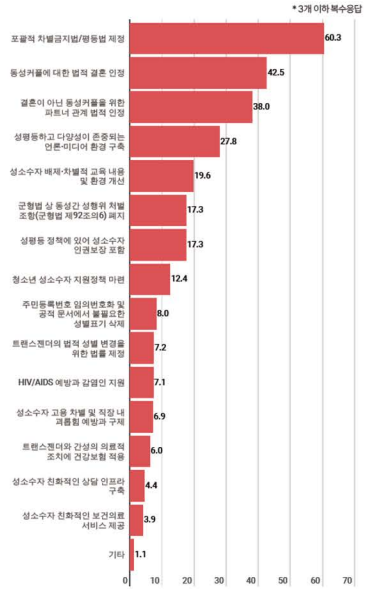
60.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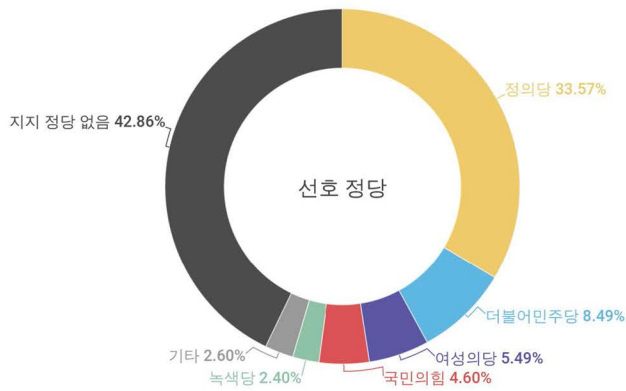
42.5%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



## 05 / 사회정치적 욕구

선호 정당



## 05 / 사회정치적 욕구

성소수자 인권단체 후원 여부 및 사유



**18.6%**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후원 중

전체(n)=727	%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	49.7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분노	17.2
개인적 행복감	14.9
경제적 여유	7.4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요청	7.2
연말 정산 등 세제 혜택	1.2
기타	2.5

전체(n)=727	%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44.0
후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20.6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13.4
후원을 요청한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9.6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6.8
후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1
기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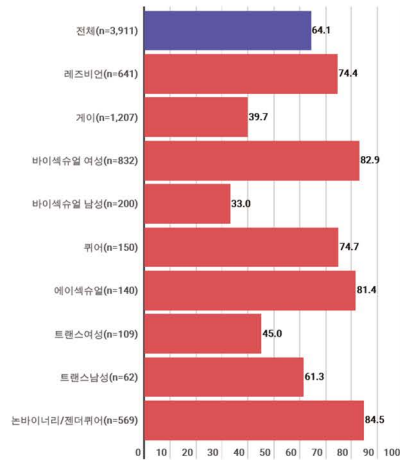
## 05 / 사회정치적 욕구

페미니즘 지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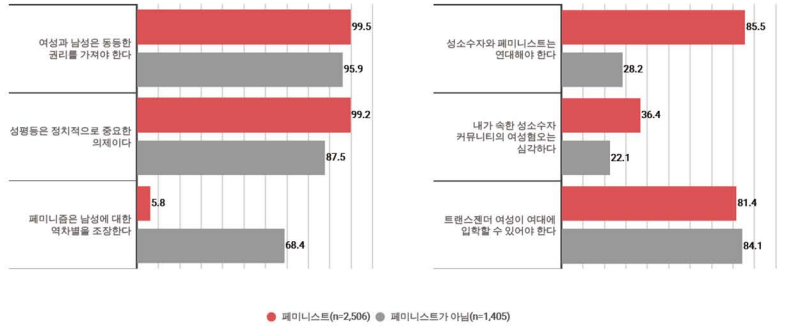
**64.1%**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 05 / 사회정치적 욕구

페미니즘 의제별 지지 여부



## 06 / 코로나19

코로나19에 관한 걱정

- 두 질문의 응답을 비교해보면, 에이섹슈얼(+15.7%), 레즈비언(+8.4%), 논바이너리/젠더퀴어(+6.3%)에서는 자신이 감염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지만, 게이(-1.7%)와 트랜스남성(-1.6%)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자체보다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이나 피해를 걱정하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작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게이 클럽 집단 감염 사태 및 그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사회적 낙인, 실제 게이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아웃팅 피해 등으로 인한 차이로 추측해볼 수 있음

단위: %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두렵다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
전체(n=3,911)	64.6	61.2
레즈비언(n=641)	65.8	57.4
게이(n=1,207)	60.1	61.8
바이섹슈얼 여성(n=832)	67.7	64.5
바이섹슈얼 남성(n=200)	60.0	57.0
퀴어(n=150)	66.7	60.7
에이섹슈얼(n=140)	69.3	53.6
트랜스여성(n=109)	64.2	63.3
트랜스남성(n=62)	58.1	5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8.7	62.4

## 06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57.6%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단위: %, 복수응답	그렇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57.6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39.9
성소수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	32.4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줄어들었다	21.4
활동하던 모임이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해산하였다	19.6
변화한 게 없다	14.9
가까운 지인 및 애인과 더 자주 만난다	14.3
줌(zoom), 디스코드 등 비대면 사적모임이 늘었다	13.7
자주 기던 성소수자 업소가 사라졌다	12.1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많아졌다	8.1
성소수자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참여가 쉬워졌다	7.4
기타	1.1

## 07 / 결론 및 함의

- 청년 성소수자들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성소수자로 정체화 함. LGBT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논바이너리, 젠더퀴어, 에이섹슈얼, 팬섹슈얼, 퀴어 등)으로 정체화 하는 데 거리낌이 없음
- 커밍아웃에 대한 욕구와 그 중요성은 큼. 과거보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아짐. 그러나 여전히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1명은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 특히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안전하고 포용적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바람.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나'를 오롯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비주류 정체성에 대한 배제나 지역 간 격차 등 참여하는 데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함

## 07 / 결론 및 함의

- 청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주요 권력기관(입법, 사법, 행정 등)이 성소수자에게 매우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함
- 정책적으로는 차별금지법과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그밖에도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및 교육과정 개편, 군형법 폐지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욕구가 파악됨
-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웃팅에 대한 걱정은 커뮤니티 내에서 높아졌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파악됨





내 일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변화  
성소수자 운동 조직방법론

## ‘사랑’의 종교가 아닌가

### - 종교 커뮤니티 내에서 변화 모색하기 : ‘큐엔에이’ 활동을 중심으로-

김유미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엔에이

#### 1.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엔에이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로부터 예수를 빼앗아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를 잃어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한국교회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 퀴어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이끈 이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과 함께 답을 찾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혐오이고, 차별이고, 증오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 합니다.”<sup>1)</sup>

2019년 제 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이 열렸다. 무지개스틀을 한 성직자 셋이 무대에 올라 축복기도를 했다. “이 기쁨과 연대의 자리에 함께 한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숨, 우리의 사랑과 시간이 모두 하느님/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나니, 하느님/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춤추며 웃고 떠드는 우리들의 하느님/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이 날 축복식의 집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동환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는 이 일을 이유로 소속 교단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2조 8항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를 정직이나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다. 재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지지’ 행위로 목사 자격을 묻는 최초의 사례다. 이 목사의 재판을 둘러싸고 감리회 내부에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의 구명 뿐만 아니라 교

1) 큐엔에이 창립선언문, 2022.04.18.

회 안에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 목표는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교회의 극우 행동성이 개신교의 내적위기와 관련 있다고 평가한다. 내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의 타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공격하는데 있다. 그 간 한국교회의 적이 '빨갱이'였다면 오늘날의 적은 '성소수자'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그리스도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시작한 '사랑의 종교'가 아닌가. 재판을 지나오며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의 변화가 곧 사회의 변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권 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변혁에 힘쓰는 일이 곧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 아닌가. 이 같은 물음들이 큐엔에이를 만들었다. 큐엔에이는 '한국교회를 향한 쿼어한 질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신교 안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 2. 큐엔에이의 활동

큐엔에이의 활동은 신앙운동, 변혁운동, 조직운동, 문화운동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1) 신앙운동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 쫓겨난 이들, 고난당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의 친구, 고 육우당의 친구였던 예수를 기억하며 빵과 잔을 나눕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다양한 몸을 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사랑을 하는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큐엔에이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가장 전통적인 신앙고백의 행위이며 신앙공동체의 정체성과 같다. 큐엔에이는 예배를 통해 혐오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 단순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짓는데 그치지 않고 예배자료를 모으고 만들어내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쿼어교회력, 쿼어시편 등을 제작하여 개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큐엔에이가 진행 중에 있는 '온전한 애도를 위한 성소수자 장례/추모 예식서 만들기 모

입'도 신앙운동의 일환이다. 애도는 종교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이며 장례예식은 교단별로 예식서가 따로 있을 만큼 주요한 예식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크리스천은 이 예식에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성애 가족규범을 따르고 있는 기존의 예식 대신 새로운 예식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새 예식서 만들기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다. 큐엔에이는 이 모임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예식서(탄생, 입학, 독립, 결합, 입양 등을 축복하는 예식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2) 변혁운동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다 교회답게 만들어 가고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신의 현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소수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진실할 것을 외칩니다. 그 외침으로 교회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사이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교단법에 ‘반동성애’ 규정을 신설했다. 전술한 이 동환 목사의 재판에 근거조항이 되었던 감리회 교리와장정 3조 8항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및 그 지지자는 교회의 직원이나 신학대학교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동성애자 및 그 지지자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적발 시 퇴학”(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큐엔에이는 이 같은 차별법을 개정하는 운동과 함께 피해사례 대응을 함께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차별법 폐지 이후 소수자를 환대하는 목회에 대한 매뉴얼을 교단별로 갖추도록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3) 조직운동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곧 공동체의 아픔임을 압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교파와 교단을 넘어 사랑과 환대를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책 〈목사 아들 게이〉(햇빛서점)은 개신교를 바탕으로 자라 온 이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신앙과 성 정체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 왔는지를 주제로 나눈 대담록이다. 책에서 더 존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나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나라에는 성소수자의 자리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목사인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더즌은 그 침묵을 감내하며 “남자를 좋아하는 내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은 많은 성소수자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아픔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체 종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진 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 모두가 어렵다. 큐엔에이는 성소수자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과 성 정체성의 조화를 이루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당사자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 (4) 문화운동

“우리는 예수가 마련한 잔칫상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려 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평화가 깃든 시를 짓고 시끌벅적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큐엔에이는 교회를 대상으로 운동을 한다. 개신교 내, 특히나 기성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큐엔에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과 같은 교단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큐엔에이는 친숙한 말걸기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결과로 큐엔에이는 매달 웹진 ‘큐티’에서 소설과 문화비평,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팟캐스트를 만들어 ‘퀴리스천’의 목소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 또한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이다.

### 3. 큐엔에이의 앞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38-39)”

큐엔에이는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귀어한 질문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큐엔에이와 큐엔에이와 함께하는 이들의 고백이 이어져 한국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것이라 생각한다.

## 평등한 노동현장을 위한 금속노조 사업

이상권  
전국금속노동조합

# 평등한 노동현장을 위한 금속노조 사업

2022년 5월 21일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수정



### 독일 생산현장 /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 현대기아자동차 생산현장 / 체코



전국금속노동조합

## 노동현장을 누구의 눈으로 읽을까?

- 어떤 라인이 노동자에게 더 편하고 안전한가?
- 여성은 왜 없지?
- 저 라인에서 장애인은 일할수 있을까?
- 생산라인은 왜 건강한/비장애인/젊은/남성을 기본값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 현실 ; 남성의 몸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라인이 여성의 몸, 노동안전, 산업재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 없음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2022년 조직현황

- 조합원 ; 여성조합원 / 182,352 ; 11,741 (6%)
- 대의원 ; 여성 할당 대의원 / 913 ; 92 (10%)
- 중앙위원 ; 여성 할당 중앙위원 / 86 ; 6 (7%)
- 민주노총 대의원 ; 여성 할당 대의원 / 308 ; 55 (18%)
- 민주노총 중앙위원 ; 여성 할당 중앙위원 / 48 ; 10 (20%)
- 조합 임원 ; 여성임원 / 10 ; 1
- 조합 상집 ; 여성상집(노동연구원, 법률원 포함) / 77 ; 25 (32%)
- 20개 지부 여성임원 ; 4
- 20개 지부 여성담당 임원 ; 6
- 20개 지부 여성담당 상집 ; 8
- 20개 지부 여성위원회 구성 ; 9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1. 노동현장의 차별시정

1) 제조업 남성 2,950,837 ; 여성 989,482 / 여성 25% / 금속노조 6%

- 금속노조에 여성은 왜 6%일까?

- 여성을 채용하지 않음

2) 채용 할 때부터 성별에 따라 직무를 다르게 채용, 승진, 임금차별 / KEC 사례

- 똑같이 공고를 나온 여성과 남성이 같은 날 입사해도 첫 월급부터 남성이 많음

- 20년후 한달에 약 60만원 차이

- 2019년 국가인권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인정, 시정 권고

- 시정되지 않았고 노동부에 고소

- 2021년 검찰은 '관례' 이므로 처벌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3) 남성의 몸을 기본 값으로 라인 설계, 여성의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함 / 1996년 한국산연 수유라인, 임신부라인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2. 반성폭력 운동

- 1) 조직내 성폭력 사건 처리
- 2)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대응
  - 2010년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직장내성희롱 사건
  - 사내하청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국가인권위 진정후 해고
  - 198일 여성가족부 앞 농성 끝에 승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 해고기간 임금지급
  - 제조업 최초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3. 성평등 교육

- 노조 임원, 사무처 성평등교육
- 각 지부 운영위, 확대간부(대의원) 성평등교육 ; 경남지부 50여개지회 확산교육
- 각 지회 확대간부 성평등교육
- 전조합원 성평등 교육 ; 기아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화성공장, 광주공장)
- 여성위 결의 ; 신규지회, 성폭력사건 발생 사업장
- 2021년 160회 이상 교육진행

\* 금속노조 성평등교육원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자 대상 성평등교육기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4.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사업

### 1) 조직실

- 시각화
- 집회, 기자회견 발언자에 여성 포함
- 순회투쟁단 평등생활수칙
- 대충지부 집회시 수어통역사 배치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노동자·청년학생이 함께  
전국의 금속노조 투쟁의 현장 곳곳을 방문합니다!**

**순회투쟁단 동지들을 만날 때는  
서로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2020 평등생활수칙  
전국금속노동조합**

- ✓ 호칭은 모두 '동지'로, 서로 존중합니다
- ✓ 성차별적 농담과 외모 평가는 그 어떤 말도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 ✓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 ✓ '나 때는 말이야~' '기록해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
- ✓ 도움이 필요해보일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 ✓ 비유언자를 꼭 배려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투쟁하는 동지이며 자신의 신념을 가진 주체입니다.  
동지의 한이다가 금속노조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바뀌어나가는 평등한 금속노조를 만들어요!**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2) 미조직전략사업실

- 이주바지락(직장내성희롱 대응방법)
- 12개국어 조합가입서 제작
- 이주 단협 현장 인터뷰
- <이주 조직화 매뉴얼>제작
- 이주노동 교안 마련
- 신규 이주조합원 사업장 통역지원
- 경남지부 ; 이주119
- 부양지부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교육

이주바지락 (메트릭스) 3 2021년 11월호

**함께하는 2020 평등생활수칙**

**함께하는 2020 평등생활수칙**

**우리는 모두 함께 투쟁하는 동지이며 자신의 신념을 가진 주체입니다.**  
**동지의 한이다가 금속노조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바뀌어나가는 평등한 금속노조를 만들어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바지락 (메트릭스)**

**함께하는 2020 평등생활수칙**

**우리는 모두 함께 투쟁하는 동지이며 자신의 신념을 가진 주체입니다.**  
**동지의 한이다가 금속노조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바뀌어나가는 평등한 금속노조를 만들어요!**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3) 교육실

-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평등, 인권교육
- 지회장 교육 인권교육에 성소수자 인권 교육
- 교육동영상에 수어통역 넣어서 제작
-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의 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바꿔보면 어떨까?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평등 사업

### 4) 정책실, 법률원

- 모범단협안 개정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인권'장 신설
- >'여성노동권' 장으로 변경
- 2021년 2월부터 모범단협안 개정 논의
-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 차별금지 명문화
- 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여성노동권
- 2021년 12월 7일 중집에서 개정안 승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 차별금지

### 제8장 인권

제110조 [인권보호] / 신설, 필수조항

① 모든 노동자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114조 [차별행위 금지] / 필수조항

① 회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조직문화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본조항의 차별 행위 내지 언동,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을 포함), 학력,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노동조합 소속 여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 성소수자

제 103조 [특별휴가] / 필수조항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휴무일,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 만큼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결혼

2. 자녀결혼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23. 기타 노사협의회로 정한 사항

⑤ 본 조항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한다. 본 협약 전체에서도 이와 같다. / 배우자와 가족개념의 재정비

 전국금속노동조합



## 모범단협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

- 12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안 승인
- 인권단체들의 환영 입장
- 주한미국대사관의 입장



## 모범단협안의 위상과 과제

### 1. 위상

- 모범단협안은 우리 노조의 기준

### 2. 과제

- 당장 소속 모든 사업장의 단협이 바뀌는 것은 아님
- 신규사업장은 모범단협안을 기준으로 단협요구
- 모범단협안의 기준으로 강령, 규약,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이 필요함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현장의 평등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 발제

린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줄여서 열린문에서 2년 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린다라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도, 큰 성취에 대한 경험담도 아닌 소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열린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문은 전북지역을 아우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로, 지역 성소수자 간의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를 공동주최하고, 각종 성소수자 인권 현안에 미약하나마 연대하는 등 성소수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문의 시작은 2016년 전북대학교 내 비공식 동아리였습니다. 이후 2017년 사회과학대학 소속 동아리로 인준 받아 활동했지만 이듬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생회에서 성소수자 동아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아리 구성원의 이름, 성별, 주거형태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열린문은 와해 위기에 처했지만 많은 연대 속에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으로 개칭,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열린문이 전북대를 떠나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이 된 2018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열린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당시 저는 연고가 없는 전주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대학생이었고, 그저 사무치게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가 필요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외로움에 몸부리치던 그 때, 앞서 말씀드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건으로 작성된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자보를 보고 분노하기도 했

지만, 부끄럽게도 일단은 열린문의 존재를 알게되어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이후 면접을 거쳐 입성하게 된 열린문은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해 상당히 포용적인 분위기였고, 약간의 우려와 달리 저는 단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도 제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었고 목적을 이뤄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성소수자이면서도 성소수자 인권 현안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종종 개인적으로 속상해할지언정 달리 행동을 취하진 않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열린문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내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당시 있었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등을 통해 새삼스레 세상이 생각보다도 훨씬 나와 내 친구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 성소수자에게 비교적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을 뿐이었음을,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무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지방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늘 성소수자 혐오에 부딪혀 단체 포스터와 현수막은 설치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철거되기 일췌에, 내적으로 운영인력과 자금이 늘 모자랐습니다. 특히 운영인력의 부족문제는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의 보수나 보상은 없으며, 책임져야 할 것은 무수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지방의 경우, 서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라는 점이 조금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열린문이 상상 이상으로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던 터라 운영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린문은 함께한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제게는 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빠져들게 했을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일종의 해방감과 안전하다는 확신이 좋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늘 가슴 한 켠에 불안감을 안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이나 지향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은 겪어본 적 없지만, 미묘한 차별이나 시선은 이따금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문이라는 공간 속에서 저는 안전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자락이라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가 오래도록 평화롭고 따듯하게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또한 당시 전주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분들과 활발히 교류하곤 했는데, 지역에서 성소수자 가시화, 인권 증진 등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베이스캠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고 오래오래 싸우려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운영진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좋았으나 가는 곳마다 난관 투성이었습니다. 단체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텀블벅 준비부터 회원관리까지, 낯설고 서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특성상 회원 간의 사건사고도 잠잠해질만 하면 발생해 중재를 위해 진땀 빼야했습니다. 심지어 일에 조금 익숙해지려는 차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대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운영인력이 도저히 모이지 않아 지난 1년은 단체 휴식기를 선언하고 2인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에 돌입해 현재에 이릅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잘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단체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특히 활동을 하며 만난 연대단체와 시민분들과의 인연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문이 위태롭게나마 아직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연과 연대의 힘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는 아주 소중한 지지대입니다. 아무래도 혐오세력을 자주 마주하다보면 인간에 대한 회의나 불신, 분노같은 감정이 가끔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대하고 힘을 보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언제나 다시 인간을 긍정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 커뮤니티 성격의 단체이다보니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더군요.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아야 활동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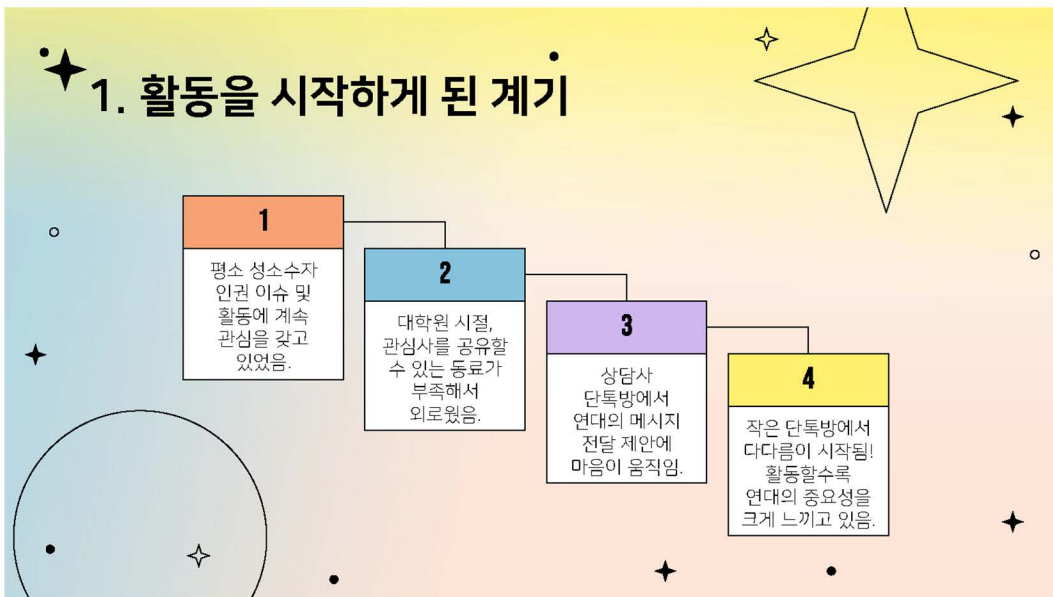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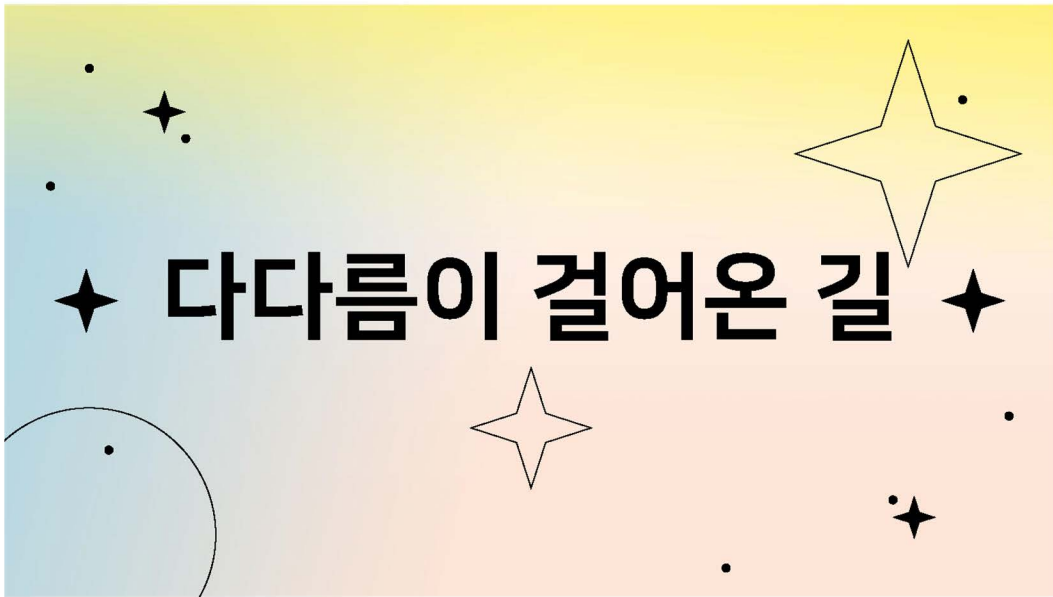
현재 열린문은 여러 사건사고와 휴식기, 불안정한 비대위 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으며 단체 규모가 축소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서 언급한 지지대 덕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위기를 겪으며 저라는 개인은 다소나마 성장하고 단단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량화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미미한 성과지만 살아남아야 그 다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감염병 문제, 단체 운영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와중에 생업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단체 유지관리 등 앞으로도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열린문을 만들어 나가려합니다. 제가 단체를 떠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 다지는 것, 구체적으로는 좀 더 활동적인 단체가 될 수 있게 위촉된 회원 간 교류를 늘리고 단체의 각종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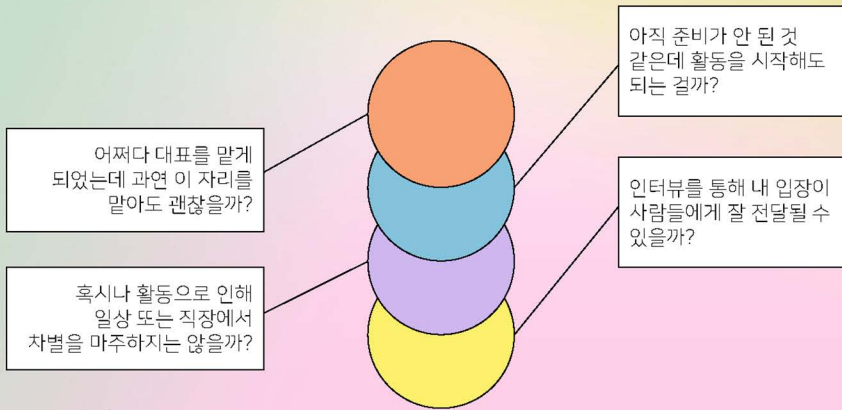
# 다다름이 걸어온 길

박도담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 2. 활동을 시작할 때 걱정했던 점




## 3. 활동하면서 마주한 어려움

	<p><b>활동 지속</b></p> <p>각자 다른 직장에서 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보수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음.</p>	<p><b>일정 조율</b></p> <p>모두 가능한 회의 시간을 찾기 어려웠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온라인 정기 회의로 모이고 있음.</p>	
	<p><b>업무 분담</b></p> <p>기존의 업무량, 개인적 사정, 활동에 대한 상 등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p>	<p><b>빠른 대응</b></p> <p>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거나, 집회에 참가 가능한 인원을 조적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움.</p>	



## 4. 변화를 모색하며 발견한 의외의 가능성



**상담사 연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600명의 상담사가  
참여한 성명서 발표

다다름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시민 한국상담심리학회 다다름 CQAS를 인정재단사발

**활동가, 당사자 연결**

상담사 리스트업 및  
심리지원 시스템 구축  
인권단체 네트워킹 및  
당사자 집단 인터뷰

## 5. 목표했던 성취 이외의 것들

“어떤 사안에 같이 분통 터뜨리고 같이  
서명하는 등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점”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함께 맞춰갈 수 있는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동료, 친구가 생긴 점”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나  
이야기들을 나누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

**동료**

“성소수자 상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사례회의로 성장하는 느낌”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약간의 내 강점들을  
볼 수 있어 개인적인 성장이 있었던 점”

“귀여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다”

**성장**

## 5. 목표했던 성취 이외의 것들

“당사자와 직접 연결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 지탱이 되는 것”

“상담사들끼리의 연결,  
당사자들과 상담사들의 연결,  
활동단체와의 연결 등  
그 연결의 중심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연대감**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할 때  
내담자가 ‘사람들이 모여면 뭔가  
움직임들이 생겨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예전보다는 더 긍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활동이 헛되지는 않을 거야’

**희망**

## 6. 현장에서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변화



**상담 경험**

여러 성소수자의  
상담경험들을 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상담사 교육**

성소수자 집단의 특성과  
개인의 고유성, 교차성  
이해 및 감수성 증진



**상담 가이드라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네트워킹 확장**

수도권 중심 탈피를  
위한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 7.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 분들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내 삶보다 우선시되어 나를 너무 갈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어요.

부디 나의 안녕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린 동료들을 만난다는 건,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믿음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연속성의 기반이 된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을 것!

나를 믿고 우리를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나를 믿고 작은 것부터 행동해보시길요!

## 성공회대학교 모두의 화장실

송성윤

성공회대학교 '모모'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모두의 화장실 발제를 맡게 된 작년에는 성공회대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인권국에서 활동했었고, 올해부터는 성공회대 '모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성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평균 화장실을 몇 번 가시는지 아시나요? 보통 하루 평균 4~7번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오줌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남으로 구분된 성별이분법적인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는 성소수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가 되어버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아동 등 전부 나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241명)가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고, 39.2%(231명)가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며, 37.2%(219명)가 멀더라도 남녀공용 또는 장애인화장실,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36.0%(212명)는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나타나고 있죠.

화장실 문제는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의 유색인종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등 수많은 인정투쟁이 있었으며, 기존의 화장실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장실은 진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화장실이란 무엇일까요? 모두의 화장실은 이러한 기존 화장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이, 성별, 성적체성, 인종,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성공회대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을 성중립화장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성중립화장실은 모두의 화장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중립화장실은 시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아동 등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중립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모두의 화장실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다양성연구소에 모두의 화장실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듯 모두의 화장실은 모두를 포함하지만 그중 성소수자 의제가 특히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실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중립이라는 요소는 쉽게 적용되지 않고 있죠. 모두의 화장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성중립이라는 요소 때문이고요.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공회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더 이상 화장실 문제로 공간에서, 일상에서, 수업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의 화장실 설치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가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 안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2016년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를 통해 제기되었고, 2017년 총학생회 '바다'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설치는 무산되었고, 2021년 제36대 총학생회 선거에 한 후보가 출마하며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쉽게도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해당 후보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17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활동의 건' 중앙운영위원회 만장일치 의결
2021년 5월 24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활동 예산의 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가결
2021년 5월 27일	모두의 화장실 질의응답 카드뉴스 게시
2021년 5월 25일	'중앙운영위원회가 바라보는 모두의 화장실' 입장문 게시
2021년 5월 26일	모두의 화장실 지지 단위 입장문 게시
2021년 5월 31일	'모두의 화장실이란?' 카드뉴스 sns 게시
2021년 6월 21일	모두의 화장실 공론장 '수다판 하나' 진행



2021년 6월 27일 ~ 7월 25일	'여름을 보내는 모두에게' 모두의 화장실 소통을 위한 손편지 사업 진행
2021년 7월 9일	'모두의 화장실 브이로그 과천장애인복지관편' sns 업로드
2021년 7월 10일	'모두의 화장실 인터뷰 #1 박경태 교수편' 업로드
2021년 7월 13일	'모두의 화장실 브이로그 아하센터편' 업로드
2021년 7월 26일	'특권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성명서 게시
2021년 7월 27일 ~ 31일	총학비대위원장과 학우들이 직접 만나는 '우리 지금 만나' 진행
2021년 7월 30일	'모모아카데미'(모두의 화장실에 관한 모든 것) 강연 하나 '모두의 화장실이 뭐야?' 진행
2021년 8월 2일	학우들의 질문에 총학비대위원장과 인권국장이 답하는 '모두의 화장실, 총학 비대위에게 묻다' 영상 업로드
2021년 8월 9일	모모 아카데미 강연 둘 '민주주의와 모두의 화장실? 모장실과 학내 민주주의' 진행
2021년 8월 10일 ~ 12일	모두의 화장실과 관련된 부스를 기숙사 로비에서 진행
2021년 8월 13일	'모두의 화장실 인터뷰 #2 정연보 교수편' 업로드
2021년 8월 15일	'모두의 화장실 인터뷰 #3 조은지 학우편' 업로드
2021년 8월 18일	'모두의 화장실 브이로그 헤이그라운드편' 업로드
2021년 8월 26일	모모아카데미 강연 셋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모장실? 모장실과 교차성' 진행
2021년 8월 31일	모두의 화장실 Q&A 카드뉴스 업로드
2021년 9월 8일	모두의 화장실 종알종알 한마당 진행
2021년 9월 14일	제1차 인권개선협의회 진행
2021년 9월 15일 ~ 12월 2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 촉구 1인 시위
2021년 9월 23일 ~ 10월 21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 촉구 1인 발언
2021년 9월 24일	제2차 인권개선협의회 진행
2021년 9월 28일	성공회대학교 성공회 재단 규탄 기자회견
2021년 9월 29일 ~ 10월 1일	모두의 화장실 대면 부스 진행 (설명 및 굿즈 나눔)
2021년 10월 1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시작
2021년 10월 13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플래시몹 진행
2021년 10월 14일 ~ 15일	모두의 화장실 대면 부스 진행

	(나만의 화장실 꾸미기 및 퀴즈)
2021년 10월 21일	성공회대학교 학생복지처 주관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 진행'
2021년 11월 4일 ~ 5일	총학생회비대위원장과 학우들이 직접 만나는 '우리 지금 만나 시즌2' 진행
2021년 11월 11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 기원 촛불 문화제 '칼칼칼 물 내림제' 진행
2021년 11월 24일	성공회대학교 처장단 회의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 확정
2021년 12월 2일	모두의 화장실 설치 기원 촛불 문화제 '칼칼칼 물 내림제2' 진행
2022년 1월 11일	1차 견적서 및 설계도
2022년 1월 24일	2차 견적서 및 설계도
2022년 2월 25일	모두의 화장실 공사 시작
2022년 3월 4일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모두의 화장실 공동대책위원회' 부스 운영 (퀴즈 및 굿즈 나눔)
2022년 3월 16일 13시	모두의 화장실 준공식
2022년 3월 16일 18시	모두의 화장실 준공 기념 행진

전체적인 타임라인입니다. 학생자치기구는 활동 내용, 예산 등에 있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5월 17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활동의 건' 의결, 5월 24일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활동 예산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뒤로 총학생회에서의 모두의 화장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 활동에 있어서 활동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화장실 홍보 사업 (ex. 카드뉴스, 브이로그, 인터뷰, 부스, 굿즈 제작 등)
2. 학생이 아닌 다른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화장실 홍보 사업 (ex. 점심 먹고 화장실 토크, 홍보물 붙이기 등)
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득 사업 (ex. 수다판, 모모야카데미, 우리 지금 만나, 손편지, 대토론회)
4.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지지하는 학우들을 결집시키는 사업 (ex. 플래시몹, 물내림제, 손편지 등)



5. 학교 본부를 압박 및 설득하는 사업(인권개선협의회, 1인 시위, 1인 발언, 규탄 기자회견, 대토론회 등)

5월 25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문이 게시되고, 5월 26일 학내 모두의 화장실 지지 단원들의 입장문 19개를 sns, 에브리타임을 통해 게시하게 됩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2017년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제36대 총학생회 선본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공약으로 가져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슈는 단순히 알려지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수많은 논쟁과 혐오가 퍼져나갔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모두의 화장실 지지 단원들의 입장문을 게시했을 당시 가장 극에 달했고, 당시 에브리타임의 게시물 중 8할이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되었던 지점은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투표로 인해 당선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설치 과정에서 총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민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실제로 어떤 한 학우는 익명으로 모두의 화장실 논의 원점화에 대한 총투표 발의 연서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연서명이기에 받아드릴 수 없었지만 이 외에도 총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양했습니다. 총학생회 비대위에서는 우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고장 나 수리할 때 총투표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총투표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총투표를 거치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투표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계획 및 진행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방향의 사업들을 1년간 꾸준히 진행해왔고, 그러한 결과 중 하나로 학교 본부에서 주최한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교수, 총장, 교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고, 찬성 발제와 반대 발제로 나누어 발제를 한 뒤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자의 정체성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는 토론을 개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비교적 다행히도(?) 반대 발제로 나왔던 학우분께서는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총학비대위의 방식이 비민주적임을 지적하며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제를 포함하여 해당 토론회 전체에서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음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모두의 화장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지점

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했고, 2021년 11월 24일 처장단 회의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확정지었고, 그 뒤로는 예산, 장소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 논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약 1년간의 활동, 길게 본다면 6년이라는 시간동안 진행된 모두의 화장실 설치 활동은 2022년 3월 16일 준공식을 끝으로 하나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 앞으로... 모두를 위한 모장실 문화 만들기 “모모”

모두의 화장실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단순히 지어지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이 진정으로 모두의 화장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혐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또 이 화장실을 알리고 사용하게끔 하는 설치 이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기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앞으로의 모장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모두를 위한 모두의 화장실 문화 만들기 모임 모모’를 만들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어는 나아간다  
우리가 보내 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제14회 성소수자인권포럼>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무지개행동 집행위)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

-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와 자리: 국가통계의 문제
- 엘라이와 혐오세력 사이: 한국 시민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어떻게 변화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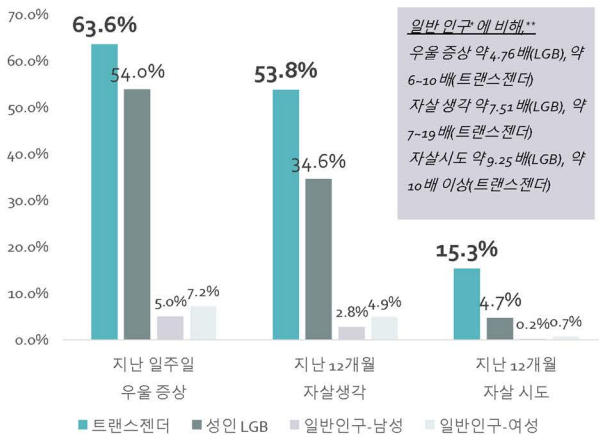
- “한국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_\_%는 입니다”
-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로 이야기 할 수 없음
- 국외의 국가 통계 등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추정만 가능함



## 성소수자의 인구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 통계의 부재

- **조건:** 2021년 10월 17일 기준, 통계청 승인통계 중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측정하고 있는 조사
  - 한국 성소수자의 인구규모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전무
  -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법·정책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존재, 경험과 욕구는 국가 통계에 기입되지 않음
  -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여건, 건강 수준 등을 정확히 비교하여 파악할 수 없음

## 인구 통계의 부재와 정책의 부재 : 정신건강의 사례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5)을 보면, 정부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장애인, 청년, 산모 등을 언급하고 5년간 이들을 위한 정신보건 인프라를 촘촘히 할 계획을 세웠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겨레, 2021.3.31)

\*일반인구 - 비교 대상 성소수자 설문조사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진행 된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우울증상, 한국복지패널, 자살생각 및 시도: 국가건강영양조사)의 동일 문항에 응답한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  
 \*\*우병률의 비교 - 연령·교육수준 표준화유병비를 산출



## 성소수자에 대한 다른 국가 통계는?

- <사회통합실태조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국가 통계 자료

<표 2>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문항을 포함한 한국의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 현황 (N=11, 2021년 10월 1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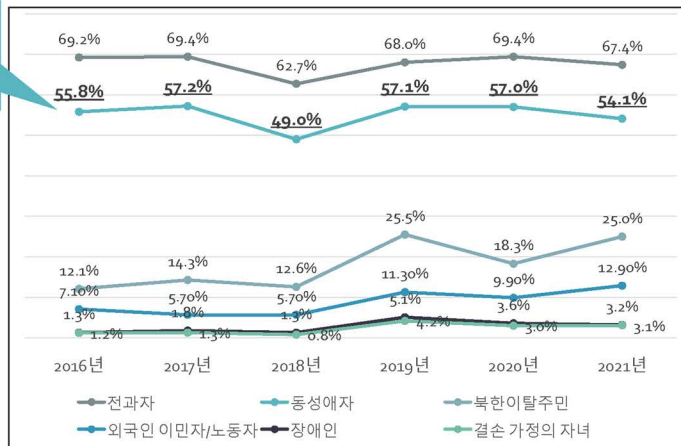
분류	N	목록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8	가족출산조사 (2015), 아동종합실태조사 (2008, 2018), <u>사회통합실태조사 (2011, 2013-2020)</u>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15, 2018),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 국민법외식실태조사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2019)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경험	1	근로환경조사 (2010, 2014, 2017) - 지난 12개월 동안의 일 관련 차별 경험: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문항 -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해당 문항을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2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006-2008) - 첫 성관계 경험 상대의 성별 (2006), 동성애 경험 여부 (2007, 2008)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문항 - 가장 최근 차수에 문항을 포함한 경우	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6-2016) - 동성애 성 접촉 경험

주: 설문지가 일반에 공개된 통계청 승인통계 조사통계 중 조사지역이 전국, 조사 단위가 가구나 개인인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로 총 129개의 설문 조사를 검토한 결과임.

이호림, 이혜민, 주승섭, 김민영, 엄윤정, & 김승섭, (2022).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 (74), 175-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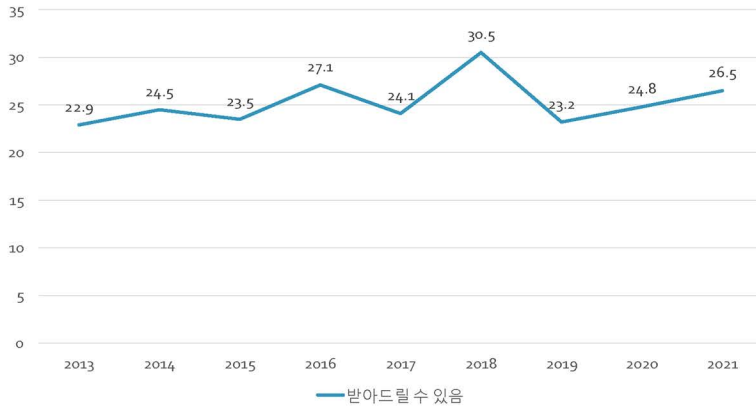
## <사회통합실태조사> 소수자 배제 인식: 받아드릴 수 없음

동성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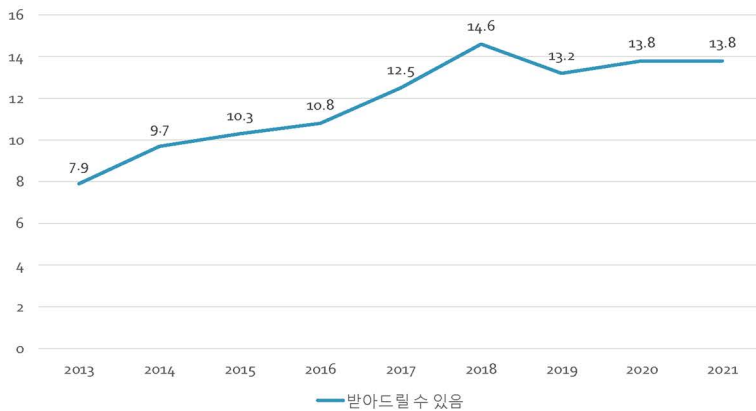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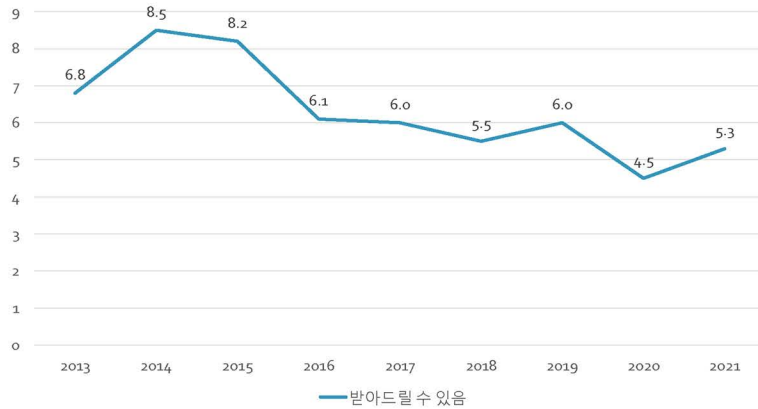
**<사회통합실태조사>  
이웃: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 (%)**



**<사회통합실태조사>  
직장동료: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 (%)**



## <사회통합실태조사> 절친한 친구: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 (%)



## <사회통합실태조사>

-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비해 배제적 인식이 매우 높음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크게 변화되지 않음
  - 받아들일 수 없음 - 이웃 - 직장동료 - 절친한 친구 - 나의 배우자
  -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추이였지만,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이: 포용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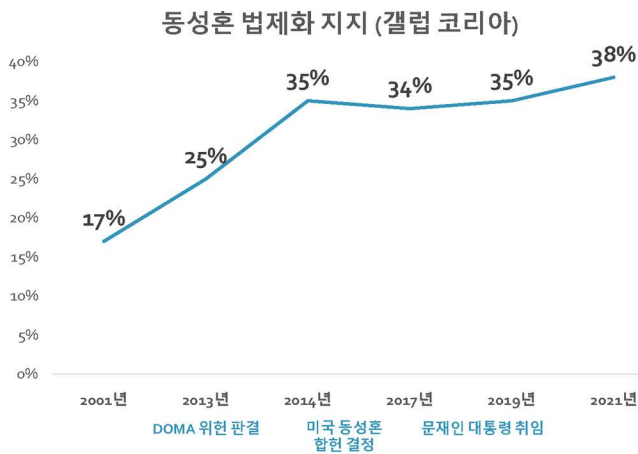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

45-5.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성적 소수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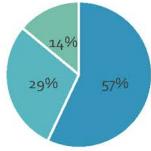
구분	① 받아들일 수 없음	② 나쁘게 여겨지는 것	③ 나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④ 나의 생활한 친구가 되는 것	⑤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020년	57.0	24.8	13.8	4.3	0.0
2021년	54.1	26.5	13.8	5.3	0.4
동·읍면부					
도시(동부)	55.0	25.4	13.6	5.5	0.4
농어촌(읍면부)	49.3	31.7	14.7	4.0	0.2
성별					
남자	52.1	27.8	14.4	5.3	0.3
여자	55.9	25.2	13.2	5.2	0.5
연령					
19 ~ 29세	51.7	25.7	16.6	5.5	0.5
30 ~ 39세	49.4	26.9	15.1	8.5	0.1
40 ~ 49세	49.1	30.9	14.4	5.4	0.3
50 ~ 59세	53.9	26.8	14.1	4.8	0.4
60세 이상	61.0	23.7	11.1	3.7	0.5
65세 이상	64.4	21.5	10.2	3.3	0.6
직업					
전문관리	52.8	22.3	15.3	7.9	1.6
사무	49.0	28.7	15.0	7.0	0.3
서비스판매	53.8	26.8	14.1	5.1	0.3
농림어업	64.0	25.0	8.6	2.2	0.2
기능노무	58.4	25.2	13.2	3.0	0.2
기타	50.7	8.6	21.0	19.7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5.4	16.3	6.4	1.7	0.1
100 ~ 200만원	63.3	23.7	10.2	2.4	0.4
200 ~ 300만원	57.2	23.8	14.7	4.1	0.3
300 ~ 400만원	51.1	28.6	15.1	4.7	0.5
400 ~ 500만원	49.6	32.1	13.8	4.1	0.5
500 ~ 600만원	54.1	25.9	13.9	5.8	0.3
600만원 이상	50.2	26.6	15.1	7.7	0.4
교육정도					
초졸미취	64.7	25.0	7.7	2.0	0.6
중졸	66.0	20.8	9.9	3.3	-
고졸	53.6	27.5	13.7	4.8	0.4
대졸이상	51.5	26.7	15.1	6.3	0.4

## 의제에 대한 인식: 동성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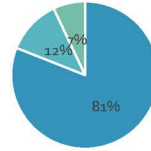
# 의제에 대한 인식

차별금지법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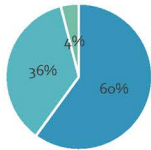
■ 제정해야 한다 ■ 제정해서는 안 된다  
■ 모름/응답거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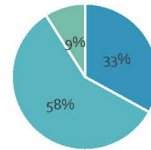
■ 타당하지 않다 ■ 타당하다 ■ 모름/응답거절

성전환 수술 (2020)



■ 할 수 있다 ■ 해서는 안 된다  
■ 모름/응답거절

트랜스젠더 군 복무 (2020)



■ 계속 해도 된다 ■ 해선 안 된다  
■ 모름/응답거절

# 의제에 대한 인식: 동성혼 (2021, 갤럽코리아)

질문) 귀하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2021년 5월 3주 (18, 20일)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용적용 사례수 (명)	동성결혼 법제화			Net Score (1)-(2)
			찬성 (1)	반대 (2)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1	1,000	38%	52%	11%	-14
지역별						
서울	192	191	44%	47%	8%	-3
인천/경기	312	312	41%	48%	12%	-7
강원	30	30	-	-	-	-
대전/세종/충청	105	106	33%	57%	10%	-24
광주/전라	98	98	31%	55%	14%	-24
대구/경북	99	98	33%	59%	8%	-26
부산/울산/경남	152	152	36%	52%	12%	-16
제주	13	13	-	-	-	-
성별						
남성	506	496	36%	54%	10%	-18
여성	495	504	40%	49%	11%	-9
연령별						
18~29세	150	177	73%	21%	6%	52
30대	148	153	52%	38%	11%	14
40대	177	189	34%	52%	14%	-18
50대	207	196	28%	61%	11%	-33
60대 이상	319	285	17%	72%	11%	-55
주요 지지						
국민의힘	269	269	24%	68%	8%	-44
더불어민주당	317	318	41%	49%	11%	-8
정의당	53	54	53%	42%	5%	11
정당(無黨)층	290	298	44%	42%	14%	2

직업별	농림/어업	22	21	-	-	-	-
자영업	190	146	33%	56%	11%	-23	
기능노무/서비스	141	137	27%	62%	11%	-35	
사무/관리	319	330	45%	46%	9%	-1	
경업주부	194	185	25%	62%	13%	-37	
학생	54	64	82%	15%	3%	67	
무직/무퇴/기타	121	117	36%	51%	13%	-15	
성향별							
보수	284	281	25%	68%	6%	-43	
중도	304	304	40%	49%	11%	-9	
진보	266	269	49%	41%	10%	8	
대통령	147	146	35%	44%	20%	-9	
공정 평가자	334	338	47%	41%	12%	6	
직무	588	584	33%	58%	9%	-25	
동성애 선전적/타고남	263	267	45%	46%	10%	0	
영향요인	463	463	30%	62%	8%	-32	
양육/사회적환경	118	120	58%	34%	8%	24	
양육/부모 영향	552	573	60%	31%	9%	29	
동성애 사랑의 힘	353	334	6%	86%	6%	-82	
인식	290	242	32%	59%	9%	-27	
필요	429	430	39%	53%	8%	-14	
정지에 약간 있다	211	213	40%	45%	15%	-5	
관심이 별로 없다	89	95	43%	38%	18%	5	

- Net Score: 순(합)지수, 찬성-반대 차이. 양수가 클수록 찬성, 음수가 클수록 반대 우세 의미  
- 50세에 미만의 수치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8호 www.gallu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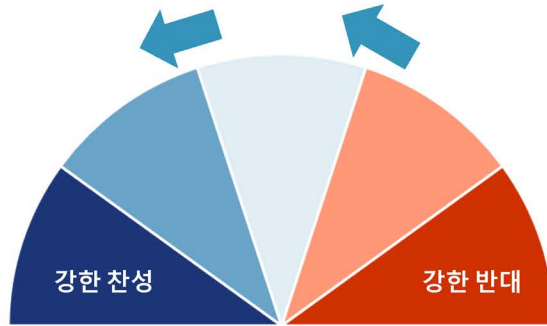
## 의제에 대한 인식: 동성혼 (2021, 갤럽코리아)

- 지역
  - 서울 - 44%
  - 인천/경기 - 41%
  - 비수도권 - 31-36% 찬
- 성별
  - 여성 - 40%
  - 남성 - 36%
- 연령별
  - 20대 - 73%
  - 30대 - 52%
  - 40대 - 34% (모름/응답거절 14%)
  - 50대/60대 이상 - 28%, 17%
- 주요 지지 정당별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41% (모름/응답거절 11%)
  - 무당층 44% (모름/응답거절 14%)
  - 정의당 53%
- 직업
  - 자영업 33%
  - 기능노무/서비스 27%
  - 사무/관리 45%
  - 전업주부 25%
  - 학생 83%
  - 무직/은퇴/기타 36%
- 동성애에 대한 인식
  - 사랑의 한 형태 60%

## 동료 시민으로서의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의제: 인식의 격차

- 개별 의제마다 격차는 있지만, 성소수자 의제에 대한 찬성 비율에 비해 동료시민인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은 수준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장동료로 성소수자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생각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향은 유사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낮을 수록
  - 가구소득, 교육수준, 지역, 직업 등이 응답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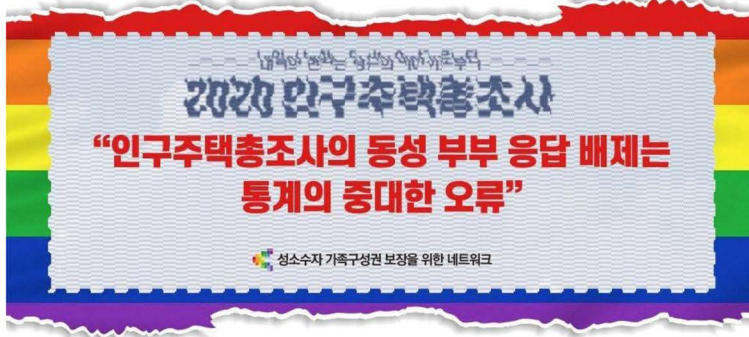
## 엘라이와 혐오세력 사이: 우리는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 점검해 볼 것

- 성소수자 관련 국가 통계에 대한 요구의 필요성
  - “세어 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If we are not counted, we don't count
  -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국가 통계는 운동의 의제로 요구되어 왔는가?
  - 커뮤니티, 개별 연구자/팀이 생산하는 통계의 한계와 국가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
  - 국가 통계의 필요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 점검해 볼 것



• 2020년 10월 14일 통계청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 질의

##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 점검해 볼 것

제 목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1. 국무총리에게,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  
에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항목 신설 등의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3. 16



##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 점검해 볼 것

- 성소수자 운동은 누구를 바라보고 말할까?
- 성소수자 운동의 대중 캠페인의 잠재적 청중은 누구인가?
- 우리의 언어/말하기는 충분히 효과적인가?
- 우리의 메시지는 잠재적 청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 우리가 가진 전달의 통로는?

감사합니다!

# 무지개행동의 5년간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지개행동 집행위

<제14회 성소수자인권포럼>

## 무지개행동의 5년간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의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든 전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상설연대체

현재 총 43개 단위로 구성.



# 무지개행동 목적과 활동

3

## 무지개행동 정관

제2조(목적)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① 무지개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2.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 각 영역 간의 교류, 논의, 소통을 위한 사업
3.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대 활동
4. 기타 성소수자 인권 옹호 및 향상을 위한 사업



# 무지개행동 활동 체계

4

## 정부기관, 인권기구 대응

- 정부 인권정책(NAP), 각 부처별 정책 대응
- 국회 입법 대응(차별금지법 등)
- 자자체 조례 대응(인권조례, 사회적 가족 조례 등)
- 국제인권매커니즘 활용

## 대중(커뮤니티, 시민들)사업

- 성소수자 인권포럼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 명절 선전전
- 논평 등 메시징

## 조직사업

- 회원단체 소통

# 무지개행동 활동 체계

5

## 정부기관, 인권기구 대응

- 정부 인권정책(NAP), 각 부처별 정책 대응
- 국회 입법 대응(차별금지법 등)
- 자지체 조례 대응(인권조례, 사회적 가족 조례 등)
- 국제인권매커니즘 활용

## 대중(커뮤니티, 시민들)사업

- 성소수자 인권포럼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 명절 선전전
- 논평 등 메시지

## 조직사업

- 회원단체 소통



무지개행동은  
대중(커뮤니티, 시민)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왔는가??

# 지난 5년을 돌아보며

6



‘나중에’

‘지금 당장’

# 2017 IDAHOBIT 공동행동 : 새정부에 요구하는 의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혐오에 맞서 연대합니다.

이오만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한국 사회 성소수자 혐오는 심각성을 더해 갔습니다. 기존 정치는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안동성매 안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 선동으로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 확산했습니다.

부패한 정권은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정치를 부추겨 자신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짓과 불의를 깨고 찬반 촛불의 힘을 통해 막고 있습니다. 안동성매, 민주주의와 평등을 앞장서는 목소리가 울려대진 광장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새로운 자리를 흔들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 성소수자 혐오에 맞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함께 행동합시다!

- 동성애가 아니라 혐오가 문제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 2017 퀴어라이브 : 지역의 성소수자 드러내기

퀴어라이브 : 무지개행동 지역순회한마당

-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퀴어들, 퀴어들의 지지자들이 함께 뭉치는 자리
  - 대전, 울산, 광주, 춘천 총 4개 지역을 방문
  - 이후 각 지역 퀴어문화축제로 발전
- #어디에나있고어디든잇는다 #퀴어력뽐뽐





# 2017 퀴어라이브 : 지역의 성소수자 드러내기

9

“무지개행동의 ‘퀴어 라이브’ 기획 배경은 10년 전 참여정부 당시 ‘성적지향’이 삭제된 채로 입법이 논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한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반성소수자 운동, 혐오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만이 아니라 정권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무지개행동은 그럴수록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퀴어들, 퀴어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뭉쳐야하고, 힘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퀴어라이브는 전국 각 지역의 퀴어들의 생생함, 인권의 최전선의 현장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이종걸, 친구사이 2017. 11. 소식지

# 2018 IDAHOBIT 공동행동 : 4가지 의제

10



- 균형법 추행죄 폐지
- 차별금지법 제정
- 성평등 민주주의
- 혐오없는 지방선거





## 2018 IDAHOBIT 공동행동 : 4가지 의제

11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 활동가로서 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한국 사회와 법제도는 여전히 성소수자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 먼저, 기본적인 권리에서의 차별이다. 동성커플은 제도적으로 결혼할 자유가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장례절차에서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정정을 하려면 생식능력 제거라는 강제불임 수술을 해야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없으며,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복무 중에 군형법 추행죄로 조사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제도적인 차별과 보호의 부재는 성소수자들을 하루아침에 벌거벗은 존재로 만든다. 유령으로 취급하고 범죄자로 취급한다..”

- 장서연, 허핑턴포스트 2018. 5. 18.

## 2019 IDAHOBIT 공동행동 : 안전과 평등

12

하나,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 등에 무관하게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위험을 알고 이에 맞서 행동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들이다.

하나, 평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전을 이유로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 소수자를 문제로 지목하고 배제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며, 평등이야말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임을 재차 강조한다.

하나, 국가와 지자체는 평등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군형법 추행죄의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증오범죄, 젠더폭력의 근절, 성소수자의 교육, 건강, 노동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2019 아이다호 공동행동 선언문





## 차별금지법 투쟁 : 차별을 드러내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줄곧 트랜스젠더이기에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글이 보이곤 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여자/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비웃음을 사거나, 서류 과정 통과에서조차 난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계활동을 하는 데 있어 슬픔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20대 트랜스젠더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은 직장에서 감염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시 HIV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 감염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경우 나가라 하지 않아도 감염인을 향한 낙인과 배제를 이미 경험한 감염인들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도로서 감염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평등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 40대 동성애자 남성, HIV감염인

# 무지개행동은 어떤 이야기를 해왔나

15

## 1.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기

- 일상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성소수자의 얼굴을 드러내기  
(이름, 얼굴, 지역을 드러내는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공개서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한줄 일기)
-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혐오와 차별의 가시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알리기
- 성소수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중요범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



# 무지개행동은 어떤 이야기를 해왔나

16

## 2. 성소수자 인권 의제 요구하기

- 차별금지법, 균형법 추행죄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 주요 의제(10개 내외)
-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선거기간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질의, 아이다호 집회에서의 구호



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 #헌법재판회 위헌 결정 폐지하라
- #수술없이 성별정정 보장하라
- #균형법 추행죄 폐지하라
- #트랜지션 건강보험 보장하라
-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하라

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Transphobia & Transphobia

# 더 이야기해야 하는 지점들

## 1. 존재하지만, 함께 하고 싶지는 않은 성소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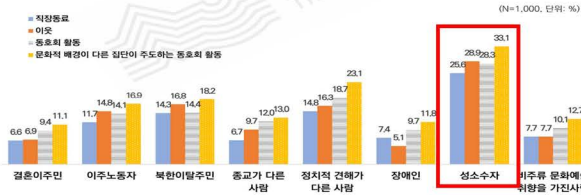
질문)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귀하는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조사연도	조사원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동료가 동성애 이유로 해고 조치		모름/응답거절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2001년 6월 23일~7월 2일	1,520	1,520	22%	64%	14%
2014년 12월 9~11일	1,005	1,005	12%	79%	9%
2017년 5월 30일~6월 1일	1,004	1,004	12%	81%	7%

질문) 귀하는 동성애자들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조사연도	조사원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동성애자 취업 기회		
			일반인과 동일해야	동일 취업 기회 반대	모름/응답거절
2001년 6월 23일~7월 2일	1,520	1,520	69%	21%	10%
2014년 12월 2주(9~11일)	1,005	1,005	85%	11%	4%
2017년 6월 1주(5/30~6/1)	1,004	1,004	90%	7%	3%

<한국 갤럽 여론조사>



[그림 4-6]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동의' 응답 비율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 더 이야기해야 하는 지점들

## 2. 돌파구가 필요한 성소수자 인권 의제

### <19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선언>

- 차별금지법 제정
- 동성결혼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 전환치료 금지, 정치종교분리 원칙 준수
- 증오범죄 방지 법제도 마련

### <제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성소수자 인권 과제>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등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를 포함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개선
-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대관금지 등 공공건물 대관 규정 정비
-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 1. 집중된 의제투쟁

-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 함께 살고 있다는 넘어 성소수자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의 설정
- 계속 변주되는 10대 의제 모두가 성소수자 인권에 중요한 과제들, 그러나 실질적 변화 없이 반복되는 상황
- 의제마다 다른 투쟁의 전략이 있음(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균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제 / 입법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 성교육표준안 등 정책)
- 선택과 집중, 1개 또는 주요 의제 몇 개를 설정하여 돌파구를 찾아보기  
*예) 동성결혼 등 가족구성권 투쟁,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라 하면서도 동성결혼 법제화에는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2. 구체적 투쟁 방향의 설정

- 새 정부 5년 하에서 예상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 김성희 전 비서관 발언, 국민의 힘 혐오정치,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억압 등)
- 현재의 지형을 점검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단기적 /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전략을 그려보기
- 성소수자 운동 상설연대체의 무지개행동의 위치와 개별 의제 연대체(가구넷, 군성넷 등)과의 연대, 타 운동과의 연대
- 제도의 변화가 성소수자 대중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이야기하기

## 논의는 이미 있었다

21

성소수자 인권 의제는 점점 더 주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차별조장세력의 반동성에 검증이 그어놓은 선일지언정 우리 사회를 그 선 안에 가두려는 힘을 손 놓고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가 우리를 몰아낼 것이다. 운동은 구체적인 변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성취하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더 높은 수준의 조직화는 자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운동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운동의 단기적, 중장기적 목표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에는 다양한 성격과 지향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고, 주된 관심사나 활동 방식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의제별로 별도의 연대체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공동의 목표설정을 가능케 한다. 무지개행동에서는 토론을 통해 성소수자 운동이 제도적 변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

- 2017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때가 왔다"

## 삶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투쟁을 드러내기

22





## 우리 권리를 실현하는 99 가지 방법: 동성혼 운동과 가구넷의 사례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가구넷')

우리가 하는 일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수행할 수 있다. 택한 방법론에 따른 유구한 전통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연장선에 있음을 안다.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서 배우며 우리가 역사의 올바른 쪽에 있음을 새삼 확인한다.

때로는 반걸음 후퇴가 있을지라도 다음은 한 걸음 전진이라는 결말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가지는 부정의에 대한 강한 거부적 감각 때문에 지금 정의의 지연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지는 않도록 한다.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작은 변화에서 효능감을 느끼며 이 흐름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서로 강화하면서 어느새 이 과업이 끝나있는 미래를 상상한다. 이 미래가 우리 커뮤니티와 내가 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그 날을 떠올려본다. 이것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활동가로서의 구체적 동기라면, 과업을 끝내게 하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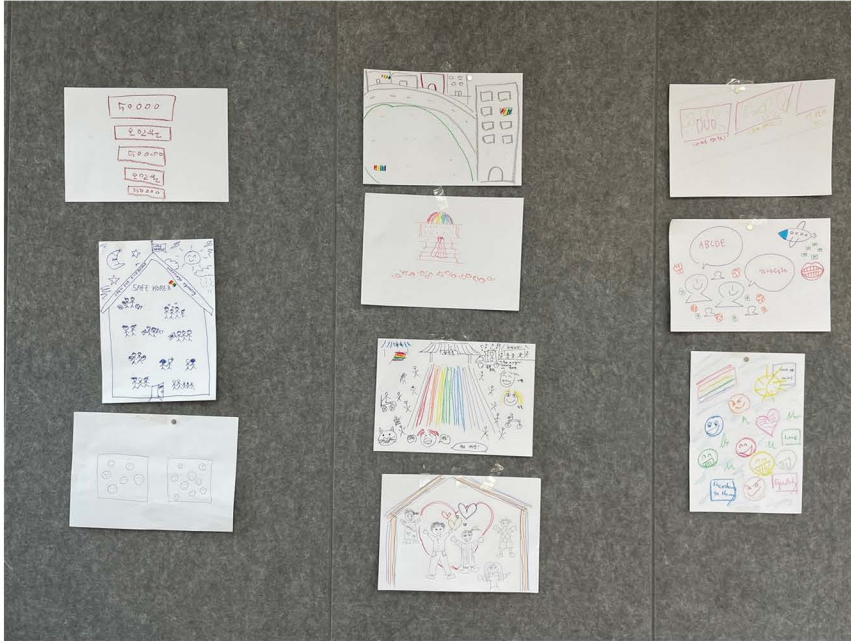


그림 1 워크샵에서 그려본 '그날'. 모두 뛰어난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다.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현재 정세, 사회적 조건, 당면 과제들을 짚어주셨다. 이번 토론에서는 동성혼이라는 의제의 선택 자체도 물론 언급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주로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 과정을 공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이자 보편적인 인권들의 쟁취의 방법론에 대해 동료들의 지혜를 구하려 한다.

###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액티비즘과 애드보커시

행동주의/액티비즘(activism) 과 애드보커시(advocacy)가 항상 엄격하게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 필자가 과묵한 탓이겠지만 오랫동안 얄팍한 수준의 이해로, 액티비즘은 부정의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문제 제기하는 것(인권 위 진정, 소송 등)이며 애드보커시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적 요소가 들어가는 광의의 액티비즘 정도로만 구별지어 생각했던 것 같다.

2) '인권옹호'라는 번역어도 존재하나 실제 한국 내 교육과정에서 애드보커시가 더 선호되는 것 같다.

물론 단어와 방법론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인권운동 커뮤니티 안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집단적 지식과 관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랐는데,

- 차별이나 침해가 발생/혹은 그를 인지하고
- 관련된 내 권리를 이해하고 (규범/기준의 범위)
- 행동한다
  - 미디어 등에 공적으로 고발한다
  -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 정보를 나눠서 인식을 제고한다
  - 대중캠페인을 조직한다
  - 소송/진정 같은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 당장 성공하지 않아도 계속한다

하지만 만일 이 과정을 ‘어드보커시’라고 달리 보고 그 방법론을 좀 더 찾으면 국가행위자에 의한 시정을 요청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어쩐지 더 강조되는 느낌이였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많은 인권운동의 매뉴얼(‘advocacy toolkit’)에는 개별 방법론에 대해서 바로 실행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그럼 애드보커시가 어떻게 정의되기에 이러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애드보커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크게 아래와 같은 정의들이 통용된다.

- 인권과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압적인 시스템, 정책 및 법률에 도전하고 변경하는 수단
- 권력을 가진 행위자와 기관이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
- 특정 법률, 관행, 정책 또는 구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긍정적인 인권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설득, 조작(manipulate)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
- “개인이 직접 또는 제 3자가 발화자가 되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에 대하여 주창하고, 대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인권 정치에서 애드보커시는 특정 입장을 대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모니터링·시민교육·정책제안·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제도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sup>3)</sup>

3) 최은봉, & 노선영. (2020). 애드보커시가 인권 개념을 심화하는가?: 인권 정치에서의 ‘역전된 제 2 이미지’. 사회과학연구논총, 36(1), 109-133.

이러한 정의들을 볼 때, 애드보커시는 '변화'를 위한 실천론이 좀 더 강조되어온 관점의 언어라고 보인다.

가구넷은 2013년 모인 이후 직간접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동성혼 쟁취사에 노출되거나 참고를 했고, 짧지 않은 시간동안 대만, 일본 활동가들과 실무적 교류를 하면서 일종의 '노하우' 공유를 했으며, 아시아 단위 워크샵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다. 돌이켜보면 이 과정에서 서로 나눈 대화들은 모두 애드보커시 방법론에 있어서 가치판단적 선택, 자원의 결집, 전략의 수정 같은 흔한 이슈들<sup>4)</sup>이었다. 이러한 산발적 대화를 좀 더 의도를 가진 (deliberate) (설사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수정을 하더라도) 계획으로서 완성하고 이행하고 수정하고 또 이행하는 것이 현재 가구넷에서 동성혼 운동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애드보커시 방법론

애드보커시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액션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1.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법적, 비법적) ('무엇이 문제인가?' '그 중에서 법적수단을 통해 무엇이 해결될 수 있는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사람들 매일의 일상에서의 일인가, 법률의 문제인가')
  - A. 성공과 실패를 정의한다 (처음부터 이것을 정의하고,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도 한다)
  - B. 무엇이 타협불가능한 사항(non-negotiable)인지 결정한다
2. 지지층과 타겟을 식별한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 엘라이 반대자(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설득가능한 중간(persuadable middle)"
3. 서사를 구성하고 진행시킨다
4. 정치 환경을 읽고 고려한다
5. 타이밍에 대해 생각한다: 언제 행동해야 할까?
6. 장(포럼)을 식별한다: 어디에서 행동해야 할까?
7. 다양한 수단과 전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한다

4) 각자 나라의 법적 상황이 어떻게 헌법은 어떻게 되어있고 하는 '정보성 대화'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지금은 서로 '어떻게 하는지' 이 고민되는 지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주로 관심이 있다.



- 전략적 소송
- 입법 로비
-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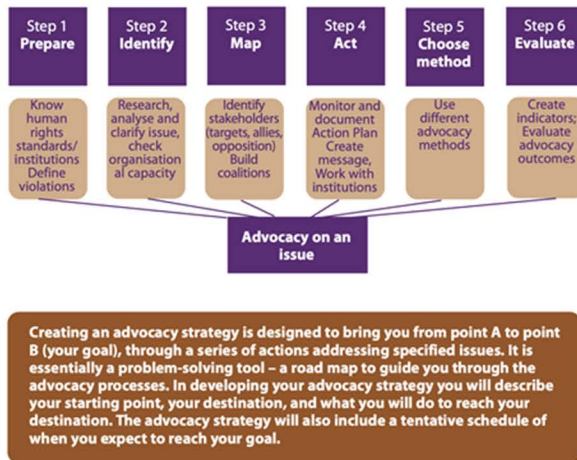


그림 2 ILGA-Europe, 효과적인 성소수자 인권 어드보커시를 위한 6단계

어드보커시 방법론에서는 여러 수단이 순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예. '캠페이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50%의 지지를 확보하고 최고법원에 전략적 소송을 제기한다'),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씩 중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아마 가장 흔한 방식일 것 같다) 어떠한 한 수단에 경도되지 않고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는 사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든다.

특히 문제 인지 이후, 소송이라는 수단을 위주로 먼저 사고를 시작하게 되면 '문제적 법이 있다/침해가 발생했다' '전략적 소송을 제기한다' '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이 소송을 둘러싸게 해서 기획한다'는 사고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설사 결과에 있어서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단이 가장 적합했는지 판단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소송이라는 수단

의 약점과 흠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보충적 수단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어드보커시 방법론에서는 일견 '사회적 합의를 구한다'는 수세적 목표에 복무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운동행위자에게 변화의 주체성이 주어지는 '캠페이닝'이 전략적 소송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 2020 년 FGI: 당신의 청증을 알기

법적인 결과, 사회적 결과를 모두 가져올 전략적 소송을 수행하고, '4종 세트' 같은 당사자 및 커뮤니티 임파워링 작업도 하고, 우리 안 서사의 다양성을 위한 '당신의 목소리' SNS 캠페인도 진행하고, 시도도 하고 다시 평가도 하고 수정해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나갔다. 이렇게 어드보커시 방법론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결국 막다른 곳에 달했는데 대중캠페인을 기획하기에 앞서 "설득가능한 중간"이라는 청중에 대해서 (특히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개인화된 TMI 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나는 반대 측에 의해 무산된 공청회나 유난히 반대자가 많았던 퀴어문화축제에서 본 사람들에게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행사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타면 이상하게 '저 중년여성분이 그 행사장에 있던 그 사람 같다..' 약간의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다시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적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좀 걸린다.

"주변에 '설득가능한 중간'이 누구였지?"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인권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내 주변의 인적 관계는 많이 정리되어갔다.<sup>5)</sup> 성소수자 운동이 중요한 직접행동을 할 때 마다 중도적인 민주당 지지자 지인들이 내 부아를 치밀게 하는 반론을 제기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분노를 억누르며 '쉬는 시간에는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피했다. 이제 내 주변은 이미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권 버블'화 되었다. 결국 나는 한국사회가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

5) 업무 동료 말고는 친구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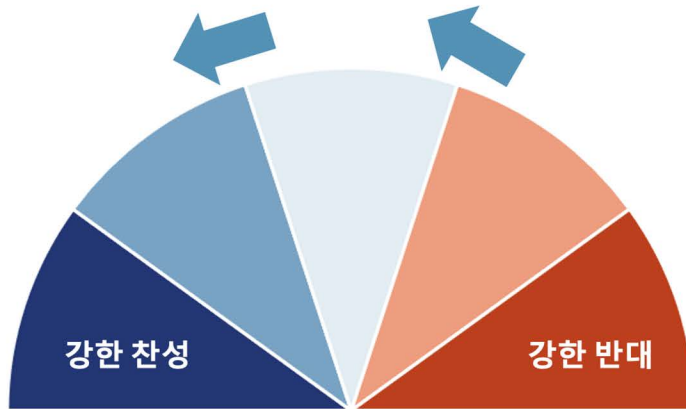


그림 122 “여기 가운데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출처: 호림 활동가의 발제문)

2020년 가구넷은 외부 에이전시와 함께 “설득가능한 중간층”이 한국 사회, 가족, 성소수자,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그를 통해 알게된 결과는 대략 이러하다.

- 성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성소수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회적 일원이지만 차별을 받고 있음에는 대부분 동의, 정서적으로는 불편하고 거북한 느낌을 가짐
- 동성혼에 대한 수용도
- 찬성이 높은 편이긴 하나 당위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 정서적으로는 아직 불편해하는 반응이 다수.
- 그러나, 반대할 명분이 없고, 이미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
-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찬성 혹은 반대 유동적으로 정리함
-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반대도 ‘약한 반대’가 꽤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됨
- 강한 지지도 아니나 확고한 편견이나 혐오가 있는 것도 아님
- “(동성혼)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성소수자에 대한 접점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 Cue가 없음
- 성소수자 당사자의 단독 이야기로서만 아니라 주변인 (가족 등) 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경험담에 감정이입



그림 123 대만 ‘할머니’ 비디오. (손녀의 파트너에 대한 말씀 중)

- 스튜디오 등 꾸며진 것 보다 생활인으로서 일상적 느낌과 생활감에 감정이입  
→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존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성소수자 드러내기의 중요성

어찌 보면 그리 새로운 진실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하던 것에 대해 확증을 더 해 주는 데이터를 더 얻었고 가끔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저 데이터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득가능한 중간층’을 설득할 서사, 메시지, 스토리텔링 등을 고민하고 슬로건, 대중캠페인 등의 기획에 적용한다.

다른 운동의 교훈도 도움을 준다. 기후위기는 오랫동안 효과적인 대중 메시징에 실패한 의제로 기록된다(당연히 국가행위자인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때로는 지나치게 전문적, 때로는 지나치게 경고주의적 공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이끄는 추동을 마비시키는 역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간결한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힘을 강조하는 포지티브 메시징은 어느 운동에서든 강조되고 있다. 또한 때에 따라 “Defund Police” 같은 간결하면서 강력한 (어떤 층에게는 래디컬할) 메시지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현재적인 운동 내 토론이 있고 참고할 수 있다.

## 기획하고 이행하고 또 돌아보고 수정하고

캠페인이 동성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 중 유일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간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다’ 대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균형감을 가지고 캠페인에 몰입하고 또 다른 대변 수단들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있고 운 좋게 자원이 있다 해도 그때그때 선택은 언제나 간단하지는 않다. (개입 혹은 연루되기 꺼려지는) 미지의 대상을 변화시키자는 목표와 그에 따른 수단은 아직도 어색하다. 슬로건 도출 워크숍 프로그램 중 ‘동성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일반 대중에 감각(Sensing) 작업을 하러 시청 앞 거리에 나가던 경험이 생각난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신비하고 임파워링한 경험이었다고나 할까. ‘저 사람은 누군가와 소리 내어서 성소수자와 동성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구나. 이걸 백만번 하자.’

아직도 조금 낯설고 매일 익히는 중이며 시행을 주저하게도 되지만 그때마다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결코 한국 사회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비분강개다. 무지, 오해, 편견, 차별선동이 만든 엉망진창 속에 우리 커뮤니티는 응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차별에 ‘적응하며’ 보내고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언어’로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결과’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이 상황을 바꾸겠다’는 마음 뿐이다. 여정에서 느낀 교훈과 실수와 고민을 동료들에게 더 넓게 알리며 오직 ‘그날’을 생각하며 나아가려 한다.

“많은 분들의 지혜, 도움,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5년간의 HIV/AIDS 인권운동: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타리/나영정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 간략한 흐름

2017년에 발족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 감염인 인권운동을 하는 PL 자조모임, 성소수자 단체, 인권단체 등이 하고 있는 연대체로서 발족때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하 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금 예방법 개정의 핵심은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폐지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지금 HIV 감염인 인권운동이 전선을 긋고 타개해나가야 하는 지점은 바로 성적 낙인과 감염병에 대한 범죄화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9년 개정을 위해서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그 이전에 집중했던 강제검진, 강제치료 등 폐지와 사업주의 인권보호 의무 명시 등의 성과 위에 있다. 감염인이 주로 차별을 경험하는 의료기관/의료인에 의한 진료/시술/수술/입원 거부 사건은 성적 낙인과 감염병에 대한 범죄화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의료차별이다. 다른 질병, 장애, 감염병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없는 전파매개행위 범죄화 규정이 예방법에만 있는 것으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

성적 낙인을 정확히 겨냥하는 HIV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감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가 성적 지향으로 발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중후반 이전에 도착했던 에이즈라는 질병은 한국사회 남성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등장시키는(주체화) 방식으로 이미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 운동이 시작할때 동성애자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후 2017년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까지 사실 수많은 역사들이 쌓여왔다. 2006년 나누리+ 가 출범하면서 에이즈예방법에서 강제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성적 낙인을 받는 다양한 소수자 그룹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2010



년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아이캡) 조직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이 만났으며, 형성인과 친구사이가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내부 PL 구성원들과 만나고 이별했으며, 커뮤니티알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등 수많은 물밑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것을 통해서 MSM이 HIV/AIDS 관련 취약그룹이라는 보건학적 규정을 넘어서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 정치적 당사자성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에 진행한 유엔에이즈 HIV 낙인지표 조사를 한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팀을 꾸리면서 공식적으로 PL 자조모임과 성소수자 운동, 인권 활동가들이 만나기 시작했다. HIV 낙인지표 조사에 PL 구성원들이 직접 조사원 훈련을 받고, 동료 PL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이 동행하면서 자조모임 속에만 존재했던 PL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는 키싱에이즈 살롱이 시작된다.

게이바에서 PL이라는 소문이 돌면 배제를 당했던 역사를 직면서도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바라는 게이바를 선택해서 HIV/AIDS 이슈를 다루었다. PL 게이들은 게이바에 드나들었지만 PL이 중심이 되는 행사에 잠재적인 PL로서 집단적으로 출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키싱에이즈 살롱은 2년차부터 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주최로 이어졌다.

2019년 말 하급심 판사의 직권으로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있었다는 것을 2020년에 인지한 이후, 현재 대응을 위한 담론작업, 본격적인 의견서 조직과 시민사회 여론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5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도 참여하면서 이태원 클럽 관련자 검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HIV 테스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익명검사 도입을 요구하여 실행되었으며 감염병 범죄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보다 심도 깊게 키울 수 있었다.

2021년에는 인권재단사람(오픈소사이어티재단 기금)의 코로나19 인권단체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1년간 “범죄가 아니다” 기획사업 활동을 벌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감염병 범죄화에 관한 대중연속강연 진행, 게이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영상캠페인, PL자조모임과의 워크숍, 시민사회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고, 12월에는 기본소득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게이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영상캠페인은 커뮤니티에 알려진 감독이 연출하고, PL로 커밍아웃한 미술작가와 퀴어연극계 배우가 섹스파트너를 연기하였고 센슈얼하고 섹슈얼한 연출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책자와 협업하여 한국, 대만, 중국, 일본까지 송출하였는데 해외에서는 대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다. 참고로 지금 현재 <한글 2,353회/좋아요 53, 영어 842회/좋아요 42, 일본어 109회/좋아요 0, 타이완 1,892

회/좋아요 66) 적극적인 표현은 한글버전보다 높다. 일가 아시아 회의와 대중연속강연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전파매개행위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가진 공통성이 이 영상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또 가장 연대와 교류가 활발한 두 나라라는 점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짐작한다.

모든 활동을 충분히 리뷰하기는 어렵지만 대구지역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HIV 감염인 법정 장애인 인정 운동과 한국감염인연합회 KNP+가 시작한 지역사회 서로돌봄 프로젝트가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 짙을 수 있다. 이는 반복되는 의료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해소하고 요양병원 입원 거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으며 장애인정과 지역사회 돌봄 프로젝트는 교집합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물론 대구지역 단체도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와 실무 진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법정 장애인정보다 장애 등록제 폐지를 지향하는 현재 진보적 장애운동과 함께 해나가면서 필요한 누구나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차별 해소를 추동하고자 한다. 한편 에이즈운동을 집필하기 위해서 내부세미나와 집필 작업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의료차별에 대해서 의료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좀더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활동을 해보기로 하였고 네트워크 안에는 노동권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팀, 난민/이주민팀, 장애이슈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 2. 차별경험, 성적 낙인과 범죄화, 권리요구의 보편성

성소수자 운동의 활동가들은 각자 어떤 계기로 HIV/AIDS 이슈를 접하고 있을까. 내가 2017년 경부터 HIV/AIDS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인권유린 사태 이후 요양병원 입원 거부 행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기하게 되면서 보다 장애 여성공감 차원에서 장애운동과 HIV/AIDS 운동이 긴밀하게 만나고 서로에게 배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 즈음에 게이 친구이자 동료로 알고 지내던 이들이 PL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받은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캡에서 마주쳤던 다양한 얼굴들,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행사에서 만났던 다양한 활동가들, 푸제온 투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보건의료, 의약품 접근성, 제약회사와 특허의 문제로 먼저 다가왔던 것이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는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2010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태, 전국의 퀴어퍼레이드의 과정에서 혐오세력이 조장하는 “동성애=에이즈=죽음”이라는 구호였는데 죽음이라는 등식은 치료제의 발달로 떼어낼 수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동성애=에이즈”라는 구호가 조장하는 혐오선동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맞설것인지 망설이던 시기 또한 길었다. (한때 트위터 깨시민들이 동성애=에이즈가 왜 아닌지 질본 통계로 입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비가시화된 죽음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오랫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PL의 삶, 차별경험, 욕망을 제대로 듣고 관계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진행한 오픈테이블 <HIV를 둘러싼 다양한 00000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통해서 현재 게이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HIV/AIDS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사업보고 간담회 발표문에서 나미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표현했다.

*‘약 먹으면 괜찮다, 예방하면 된다, 개독의 공격이 문제다’ 등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얘기들의 반복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면죄부처럼 작용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생각하니까 괜찮아...’ ‘나 정도면 인권의식 있어’ 하지만, ‘내가 PL이 된다면, 나와 섹스를 한 사람이 PL 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PL은 항상 감염 사실을 알리고 섹스를 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서는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삶 안에 PL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거리두기는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 낙인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오픈테이블을 통해서.(나미푸)*

이러한 타자화의 양식이 지금 PL이 경험하는 차별의 감각이 아닐까 한다. 의료인들도, 직장 동료들도, 가족구성원에게서 느끼는 차별과 배제의 감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강제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교도소/외국인보호소에서는 강제적인 격리가 이루어지지만 여타의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와 배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군대에서는 강제 전역이 되고, 여성폭력피해자쉼터에서도 입소가 거부된다. 전파매개행위죄가 왜 위험적인지 수감장의 논증을 통해서 입증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통념과 분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더욱 파고들 수밖에 없다.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서로 관통될 수 있는 관계인가, 침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 무엇을 더 감수하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경험, 부딪힘과 갈등을 겪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고민에 따른 하나의 방식으로 U=U 캠페인, 프렙 실천, 콘돔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진행될 수도 있다. 문제는 보다 의식적인 고민과 토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지금은 해외 사례를 통한 짐작과 막연한 기대에 머물러 있다.

성적 낙인과 범죄화라는 키워드는 이러한 배제의 양식이 국가로부터 강제되고,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을 일깨운다. 개개인들이 돌아보고 고백하는 혐오의 감정의 세세한 무늬를 살펴보는 노력이 결국에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억압과 만날때 운동의 목표와 지향,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한센인을 비롯하여 감염병을 가진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별해왔던 근대 역사로부터 출발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또한 성폭속 위반자(이혼여성, '미혼모', 성노동자, 성매개감염인-특히 여성, 성소수자, 혼혈인과 장애인의 성행위 등) 들을 대했던 국가의 차별과 배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성적 문란이 세상을 재조직하는 자유와 평등의 논리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한편 HIV/AIDS 이슈에 있어서 국가는 아이샵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근육질의 게이 형상 포스터로 대표되는, 게이 친화적인 진단검사 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이샵을 통해서 게이는 국가 정책에 접촉한다. 아이샵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데 왜 요양병원은 PL에게 적대적인가? 왜 국가는 아이샵을 제외하고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확진되는 순간부터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국가의 차별 매커니즘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 또한 권리가 되기 어렵다. 진단에서부터 치료, 차별철폐까지 권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은 도전받아야 한다.

보편적인 권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소수자들의 특별한 외침이 불가피하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은폐하는 매커니즘이 살아있는 이상 권리의 보편성은 훼손된다. 모두를 위한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마치 대중적이지 않은 요구, 대중들의 인식과 괴리된 요구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구도는 진심으로 민주당 세력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건국 이래 중단없이 특혜를 받아왔던 국힘 세력은 논외로 하자. 민주당 세력은 민주주의의 수혜를 철저히 받았으면서도, 그 범위와 한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정권을 잡으면 잡는 대로, 못잡으면 못잡는대로 그 한계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재단하고 왜곡해왔던 87년 이후의 역사가 소수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선명하게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넘어야 하는 굴곡을 보여주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면 대중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속삭여왔던 민주당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지자 소수자들을 희생양삼고 마치 자신들이 약자들인 것처럼 연기를 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대상(아직 건강한 게이/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성소수자/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성소수자)와 배제하는 대상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결국은 보편적인 권리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탐내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약속하는 ‘소비자 주권’이 가진 한계를 생각하고 ‘불화의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 건강보험 체계에서 배제된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이 충분한 치료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결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운동으로 만드는 주체들과 연합하고 공동의 전선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운동이 어떻게 성폭속 위반자들이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해방의 지향속에 구체화할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

“감염인과는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 침습적인 관계를 거부한다”는 국가의 명령이 PL을 빈곤하게 만들고 차별받게 만들며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을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 명령은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구라는 판단속에서 이루어졌다. 권리의 보편화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자격을 나누지 않고, 성적 규범을 지켜내겠다는 서약을 통해 보호를 약속받는 관계를 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적는다. 건강하고 직장에 다니며 아직 확진되지 않은 게이와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적 상황에 놓인 이들이 게이/트랜스 PL의 권리가 다르다고 인식되지 않을때 우리는 그것을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고, 결국엔 보편적 권리가 권리의 훼손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함께 경험해나가는 것이 대중운동의 지향이라고 생각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후 5년간의 활동 돌아보기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재출범 때부터 반차별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며 활동해 왔음. 두 과제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 반차별운동을 확산하면서 형성된 대중적 힘을 통해 실질적 입법을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반차별운동의 대중적 힘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는 상호의존적 과제이기도 함.
- 2) 성소수자가 중심에 있으면서도,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메시지는 한편으로 추상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한계를 갖기도 함. 평등을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연결지어 권리로서 요구하는 주체들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였음.

### 2017년

- 하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의제로 확립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로 동력의 발판을 만들.

### 2018년

- 9~12월 의원입법 발의 목표: 차제연 법안 마련하여 쟁점들을 확인하면서 발의를 넘어 제정까지 이를 수 있는 대중적 힘을 모으기 위한 계획 수립
- 월간 평등업 발행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추상적 가치로 호소하는 담론을 넘어 사람들의 구체적 일상이 차별금지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영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살피고 알리고 새롭게 제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룹들을 모으면서 저변을 넓히고 진지를 구축하고자 함.

-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우리가 간다’ 평등행진: 하반기에는 차별금지법안이 시민사회, 국회 등 입법 관련 기구들이 발의 및 논의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중적인 행동을 국회에 전달해야하는 시점에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결의를 행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집회 기획

## 2019년

- 20대 국회 내 ‘철폐되지 않을 발의’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평등을 말하는 용기’를 북돋는 것을 목표. 반차별운동과 법제정 운동 사이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깊어짐
- 차별있수다: 차별을 구체적인 나의 경험과 연관지으며 말할 수 있는 공간, 지지와 연대의 공간을 마련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을 말하라’ 평등행진: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우리가 말하자. 소수자만이 아닌 평등을 원하는 모두의 말하기로 우리 각자가 서로 존엄하고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두 번째 평등행진 진행

## 2020년

-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권고
- 전국순회 평등버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반차별 운동을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폭넓게 확장됨. 차제연 활동만으로 닿지 못했던 지역 운동들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지역 차제연/반차별 단위들이 자체적인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새로운 운동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 마련.
- 평등에 합류하라 평등행진 (11월 28일) - 미진행
- 이번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지하철 행동 기획

## 2021년

- 고 변희수 하사 추모행동 - 힘을보태어\_이변화에
- 시국선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읍소하는 청원인이 아니라 명령하는 주권자로서, 제도적 시민권의 자격인 국민이 아니라 함께 평등을 향해 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함.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와 제정까지 투쟁이 이어져야 함.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선언하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함께 할 세력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함 - 10만 행동으로 명명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6월), 박주민의원(8월), 권인숙의원(8월) 평등법 대표 발의
- 오프닝챌린지 9와 숫자들 ‘opening’
-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 전국의 제정 운동 단위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대한 공동의 전망 만들기
- 2021 평등의 이어말하기 온라인 농성: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거점 기반의 새로운 농성 방식 만들기
- 평등길1110 도보행진: 국회가 10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11월 10일로 연장. 그 안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동안 평등을 잇고 엮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10만 국민동의청원 연장 심사 기한인 11월 10일 기한에 맞춰 농성 돌입
- 12월 31일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2022년

- 차별금지법있는나라만들기 유세단: 2022년 1월 11일부터 대선 기간 중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라는 기조 하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의제임을 알리는 유세단 활동을 진행함.
-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평등이 밥이다’ 대선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와 제정의 책임을 정치에 묻고 새 정부 취임전에 제정되어야 할 과제로 들어서기 위한 행동을 진행함.
-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단식행동>: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참고자료] 20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하반기 내부토론회\_발제문



가) 발제 1.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역사 속에서 운동의 목표와 기초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0. 들어가며

이 글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21년 하반기 목표를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으로 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14년 동안 반차별 운동이 하고자 했던 목표와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어떤 과제에 놓여 왔는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글이다. 다소 축약되고, 정돈된 정리가 부족한 글이기도 하지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싸워왔는지,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시기별 운동의 흐름

1) 반차별공동행동 (2007년 11월 ~ 2010년 12월)

반차별공동행동의 시작과 배경

반차별공동행동은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1월 경 11개의 여러 인권운동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하여 시작하였다. '반차별 운동'의 내용을 모색하고, 이것을 새로운 액션으로 펼쳐나가는 연대체였다. 당시 인권시민사회는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법무부 안을 누더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반차별운동에 대한 운동 사회 전반적으로 교차적인 논의나 교류가 없었던 시기로 이를 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했다.

반차별 운동의 언어를 만들자

그러한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제정운동의 주요한 의견이기도 했으나, 반차별공동행동은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입법운동 대신 반차별 상상더하기와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발행을 통한 차별담론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차별은 무엇이고, 차별을 반대한다는 지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는지 차별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차별을 말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운동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통해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반차별 운동 간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인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반차별공동행동참여단체들은 각각의 다른 기반 속에서 출발했지만 자신들의 고민 속에서 차별담론이 확장하고, 감수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교류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다시 돌아보고, 여성운동과 장애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만나 '여성'의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할 수 있었다.

##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논의로 시작된 국면

한편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특별분과위를 운영하여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논의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2010년 한해 6월 ~ 11월 까지 여섯 차례 차별금지법 쟁점 포럼을 진행하며 반차별 운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담론의 공론장을 마련하며 차별금지법을 통한 반차별운동의 이야기들을 조직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2007년 이후로 등장한 혐오선동세력이 법무부의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며 신문 광고, 법무부 게시판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반대 세력 공세 속에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를 통해 초안과 발의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위에 내에서는 법무부의 발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안과 별개로 '올바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2) 1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sup>6)</sup> (2011년 1월 ~ 2015년 2월 이후 휴지기)

##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통한 반차별 운동의 확장

6) 2010년 12월 반차별공동행동이 제안 단체가 되어 차별금지법제정 운동단위 제안 논의 시작.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 대항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표로 차별금지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제정운동 단위로 논의 시작. 2011년 1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단위를 출범한 배경에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높이고, 입법 운동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선동세력의 행동이 곧 차별임을 알릴 수 있다고 보았다. 더 큰 목표로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통해 차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을 확인하고, 담론을 제공하여 반차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시각을 생산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계기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2012년 까지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 추진을 포기하였고, 18대 국회에서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안)으로 발의된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자체평가를 통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등의 구호를 통해 인권 vs 반인권의 구도 속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확산하고자 했던 전략이었으나, 인권법/일반법/포괄법/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취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입법의 필요성이 설득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후 19대 국회 초반 2013년 4월 김한길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안과 최원식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안이 모두 2개월 만에 자진철회 되었다. 당시로는 2개월 동안 발의 의원들에 대한 조직 등을 잘 하지 못 한 아쉬움으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는 당시의 한국사회 차별금지법 현실적 역량이 그러했다는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입법 중심의 활동에 대한 한계도 확인했다.

### 차별에 관한 담론은 섬세한 고민 속에서 확장해야

19대 국회 철회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연단체 내부적으로는 논의에서의 쟁점을 연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연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차별에 관한 한국사회의 담론이 법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대응에만 좌우 되는 것이 아닌 좀 더 섬세하게 고민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2013년 6월부터 대한문 앞이라는 의미있는 공간에서 진행한 <평등예감: ‘을’들의 이어 말하기>는 각각의 운동영역에서 경험한 차별의 경험과 그것에 대항하는 운동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로, 기존 차별영역 또는 정체성 영역을 넘어서 교차하는 자리이자 다양한 해석 틀을 발견했고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이어 말하기의 경험은 차별에 대한 경험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것에 대항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 대한 필요성 등 차별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조금씩 확인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휴지기 결정. 지속된 차별의 현실.

2014년 당시 차별금지법 관련 정세를 보면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적 권고가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인권 관련 의제를 노골적으로 무시, 폄하, 왜곡하고 있었으며, 입법부의 차별금지법발의 및 제정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았다. 또한 혐오의 양태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낙인뿐만 아니라 운동사회 전반,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고, 정치권을 비롯한 기득권에서는 혐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대체의 구체적인 동력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2015년 초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잠정적 휴지기로 들어갔다. 그 사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난 상황 속에서의 존엄과 안전의 문제와 20대 국회 총선 당시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의 현실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이후 2016년 말 진행된 촛불운동에서 평등의 시대를 요구로 이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 3) 2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년 2월 ~ 현재 )

#### 평등을 사회의 의제로서 세우기 위한 재출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2월 재출범을 논의하면서 2017년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떠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 속에서 평등이라는 원칙을 우리사회의 주요사회의 의제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10번출구 사건 이후 더 드러난 여성혐오, 2010년 이후 더 거세진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 혐오 등 우리 사회 혐오표현과 선동, 모욕과 폭력 등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각계의 현장은 이에 맞서 싸우며 의제와 활동들이 다각화되었고, 각 영역의 의제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 혐오와 차별은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이고,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며 평등의 의제를 세우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운동의 거점으로서 우리사회를 평등의 시대로 열어젖히는 자는 목표로 2017년 3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 하였다.

##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은 상호 의존적 과제

이러한 목표 아래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며 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반차별공동행동과 1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운동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두 과제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 반차별 운동을 확산하면서 형성된 대중적 힘을 통해 실질적 입법을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반차별 운동의 대중적 힘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자는 상호의존적 과제를 확인해왔다.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영역별,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소속단위의 영역 등을 확장했고, 이후 각 광역시도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연대체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활동이 아닌 각 지역 차원의 반차별 운동과 이슈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는 차원은 단체 간의 연대의 결합이었다.

## 평등을 위한 용기 내기

운동을 각 영역별, 지역별 단위에서 반차별 운동의 경험과 이슈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형식적인 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연대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부문별 거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이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추상적으로 좋은 법 만드는 운동을 넘어서, 나와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 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반차별운동의 거점에서 내용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다양한 반차별실천이 시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차별당한 경험을 용기내어 말할 수 있는 시공간이자 동료시민을 만날 수 있는 ‘차별잇수다’와 각 영역별 반차별 운동과 함께 하는 평등행진 및 평등버스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에 차별금지법을 접속시키고, 한국사회가 평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각계의 현실에 개입하여 입장을 밝히며 차별적 구조의 현실을 문제라고 밝히고 용기 내어 주장을 펼쳤다.

또한 실질적 입법 추진을 위해서 목표와 전략에 대한 세부 점검이 필요했다. 2019년 초 당시 20대 국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은 수립하기 어려웠다. 당시의 문제는 국회나 정부가 차별금지법의 의의에 대한 공감대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공세와 인권 관련 법제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적인 행동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권력(의석 수, 지지율 등)을 가진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 핑계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17대 국회 논의 이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대 국회에 발의 자체가 목표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더 이상 국회나 정부가 핑계대로 눈치 보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분위기로 전환으로서 흐름을 옮겨갔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더욱 언급되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꾸준히 밝히면서 다양한 위치에서 정부 여야 등 다양한 곳에서 법 제정 추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여야, 국가인권위 등 제도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이루지는 못했고, 제도권의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정의당 20대국회 제1호 법안 과제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 평등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 차별금지법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흐름을 만들어왔다. 집회와 행진 등을 벌이며 평등의 주체가 되려는 대중의 힘을 조직해왔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축진하면서 운동을 확장해왔다. 재출범 이후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로 차별금지법의 위상을 만들 온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중심에서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일상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담론을 만들고,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각 운동(단체 및 개인)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나/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되도록 하는 담론의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2020년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의 발의와 2006년에 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요구로서 명확하게 자리 잡은 해였다. 전국순회 평등버스, 인권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입장 발표, 지속적인 언론 보도 및 기고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장되었다.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의 구조에 맞서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의미가 보다 더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작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유예되는 국회 상황을 돌파하고 제정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 세력화의 필요성

2020년 7년만의 발의와 인권위의 의견표명, 각계의 시민사회의 지지가 드러났고,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평등버스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도는 폭넓게 확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발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민동의청원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을 통해 결국 1년 뒤에 발의 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법 제정을 추구하고 압박하는 대중주체의 형성과 세력화를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고, 운동에서도 적극적인 조직의 계기로 삼고 지지 세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일상을 연결하는 담론 등과 연결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 반차별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연결되는 활동의 경험과 구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운동 단위 및 지역 차체 연이 확장되었고, 2020년 전국순회 평등버스는 반차별 운동의 기틀을 더욱 넓히는 경험이자 계기가 되었다. 반차별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계속 이어질 때,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각 운동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풍성해질 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반차별 운동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흐름이자 세력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부 단위들의 자체 활동,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제 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구성된 단위, 반차별 운동과의 연결을 이제 막 시작한 단위 등 차이를 고려한 네트워크 기획과 공동행동의 전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운동 속에서 확인하는 목표와 가치

### 1) 평등의 가치 - 반차별 운동의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년 재출범 하면서 내걸었던 목표가 바로 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삼는 것이었다. 그 동안 제대로 요구되지도 못하고 억눌려왔던 평등의 가치를 쫓을 이후 민주주의에서 의제로 삼아 목표로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차별철폐 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 경험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차별철폐운동의 결과로 개별 사유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고, 차별의 개념이나 정책 수단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차별철폐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그 사회의 차별/평등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한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사회적 의제로 올리는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위한 세우기한 운동의 도전은 2007년 이후로 직면하고 있는 혐오와도 연결되어 있다. 시대 전반에 감지되는 혐



오와 차별 현실 속에서 평등을 가치로 하는 반차별 운동의 확산은 각계의 여러 운동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차별 철폐 운동을 서로 모으게 하면서 '함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싸움/정치를 만들 때에 권리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 2) 연대의 정치

반차별 운동의 확산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 단위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연단체 조직이라 할지라도 반차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의 논의 과정,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토론하고 고민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 여성의 이슈만으로 인식되었던 초기 흐름에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 단위와의 결합과 간담회, 반차별 관점에서 각계 운동 논의, 지역 간담회, 반차별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은 반차별 운동을 확장하는 중요한 활동들이 그것이다. 150여개의 다양한 단위의 연대 속에서 논의 참여를 위한 접근권에 대한 고민, 반차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을 하면서 책임을 확인하는 것, 문화제와 행진 및 집회 안에서 각계 영역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특정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운동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되었고 서로의 운동을 심화시키며 운동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길을 터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지역마다 구성되는 반차별연대체가 혐오의 시대 평등의 전망을 더 확장하고 두텁게 만들어왔다. 여기에서 촉발된 교류가 운동과 운동의 연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운동이 기대고 밀어주며 각자 부딪친 곤란함을 넘겨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 3)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준거로 삼는다는 것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시간을 생산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논거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규제해야 할 차별영역이나 차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차별현실과 차별적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다양한 현장(지역, 각계 시민사회 조직)에서 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왔다. 현실 정치 안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나 정부/정치권의 법 제정 논의 유예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14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 사이 각 지역의 인권 관련 다양한 조례 제정운동, 차별금지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각계의 논의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나가며

우리는 지금 반차별 운동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그것은 법제정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 10만 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서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그것이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길러지는 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의 길도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면서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이어야 하며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힘든 도전인 만큼 그것을 함께 일구어낸 동료 시민들의 연대감도 크다. 그 도전이 나 스스로의 변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동료나 변화를 말하기 어려운 조건의 권력이 있는 누군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어서 힘들지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남은 운동의 과제도 결국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을 더 조직해서 반차별의 가치를 알리고 평등을 요구해야 이룰 수 있다. 그 변화에 우리는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

#### 참고자료

미류, '혐오의 시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과제', <2019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네트워크 워크숍, 반차별 전국열차>

박석진,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中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추진모임(가칭) 제안서'

신기루,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위상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전략을 중심으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이유 있는 여섯가지 걱정 - 그 여섯 번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년 ~ 2020년 활동 평가 및 활동 계획 관련 회의자료

## 나) 발제 2. 차별금지법 2021년 제정,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싸울 것인가?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0년대 초반부터 몸집을 키워온 ‘혐오의 정치’에 대항하는 것은 최근 몇 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혐오선동세력의 폭력과 차별,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장하는 정치와 제도,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역량의 부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제정 운동은 단순히 혐오를 지적하고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을 승인하는 구조와 혐오선동-기득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의 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혐오선동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할지언정, 그 대안으로 ‘평등’을 선언하지는 못하는 시기가 계속되며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

2020년 슬하게 회자되었던 코로나19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나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차별과 불평등을 사회적 경험으로서 감각하는 조건이 됐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로 가시화된 여성 대중, 그리고 2017년 촛불시민이라는 주체, 광장이라는 공간을 열어젖히고자 했던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소수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쓰고자 했다면,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을 체감한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장으로 모이고 있을까.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차별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조건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반차별과 평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힘의 관계를 변화시킬 전망과 세력을 모으는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를 점령하던 아주 짧은 시기를 지나,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회복’을 갈구하며 노동세계를 계속 후퇴시키는 정치와 자본의 움직임,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정’하기라도 할 것을 요구하는 흐름이 가시적으로 등장했다. 혐오와 마찬가지로 공정과 능력주의, 저학력-비정규직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을 필두로 한 역할별 담론은 이미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다. ‘노동/복지’로 일부의 자원을 ‘취약 계층’의 손에 쥐어 주면서 성평등이 애저녁에 도래했을 뿐 아니라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장에 시민으로 등장하기 위해 요구했던 권리와 역량을 경쟁과 능력으로 구분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떨어질 수 없다.



평등을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위치시키고자 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돌파해 나가야 할 조건이다.

##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생존의 요구'라 선언했나

지금까지 차별금지의 중요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많은 차별 당사자들이 용기내어 차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재정적인 보상이라기보다 바로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회자원의 평등한 분배보다 인격적 존중이나 배려 혹은 보호, 즉 '인정'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인 차별을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차별의 당사자가 어떤 사회적 조건과 압력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가지는 유무형적인 이익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의 반증이기도 하다.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선거와 인사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질문은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혀 있던 현실의 표지였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는 사회에서 '후퇴 없는 차별금지사유'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요한 함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동체에서 관계맺을 수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등하기 전에는 결코 엇비슷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것으로서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문화를 상징하는 것과는 다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차별의 경험이 단순히 심리·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과 사회정치적 장에서 완전한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함께 문제제기 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운동의 토대 위에서 (특히 올해 10만행동의 성과 위에서) 이제 적어도 보수개신교의 '동성애 반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해 가고 있다. 이 세력을 핑계 삼아 공공연하게 차별을 선언했던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우리가 함께 겪어야 했던 김기홍 활동가, 이은용 작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더욱 인식시켰고, 차별금지법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과 공감대를 증폭시킨 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의 고통과 비극, 죽음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감각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긴장 역시 존재한다.

단순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명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고유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 닿고 있을까. 홍석천의 커밍아웃 이후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에 대한 사회의 불인정과 폭력을 드러내지만, 노동권의 침해와 생계의 문제로 상상되지 못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드러냈지만, “국가에 의해 버림받은 ‘직업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하는 국가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어렵다. GS 편의점 사태 이후 페미니스트 아르바이트생 채용 거부 문구는 ‘안티페미니즘’의 증거로 소환되었지만, 취업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의 의제에서도 거부당했다. 진주교대가 “장애인은 날려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불합격 시킨 사건은 장애인 차별로는 이해되어도, 공정한 경쟁의 실패 혹은 능력주의가 약속한 평등의 실패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차별 혹은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보다 노동세계의 관점에서 물리적 분배와 배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인정 문제는 ‘물질적 분배’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얽혀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정체성’의 이름으로만 남기를 요구하는 사회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드러나고 있는지,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이 차별금지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떠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서울 신촌 지하철에 걸렸던 광고의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는 선언은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멈추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일상이 ‘성적 지향’으로만, 파트너십이나 성적 행동으로만 제한되는 관점을 거부하고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누군가의 일상을 떠올리라는 요청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명한 문구이자 선언인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생존의 요구, 삶의 문제라는 선언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지, 시민들의 삶의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권력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수자라는 지위를 여전히 특수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 선별과 분류의 자격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기득권에 맞서서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바로 이런 이들의 연대를 키워온 과정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가

###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민들의 생존, 삶의 문제라는 점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언하듯이 차별 금지하는 항목들을 늘리기보다는  
애매한 것들은 제외하고 정말 인권의 보호에 결정적인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면  
不要不急한(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차별을 골라내어 혼란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예측했지만 당도하지 않은 미래로 ‘재계의 반대’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규율 영역이 고용이고 가장 많은 쟁점을 담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혐오의 정치에 밀려 시장의 목소리는 비가시화되어 있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들이 가시화된 상황은 그만큼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보수개신교 반대 진영과의 싸움을 넘어서 제정 운동이 새로운 논쟁의 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논쟁의 시작에서 성별, 학력/학벌/출신학교, 사회적 신분으로 자리매김한 고용형태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합리적인 ‘차이’에 근거한 정당한 ‘차등’ 조치라는 주장들을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혹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던 혐오선동세력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차별이다, 차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역차별 담론은 평등이 민주주의의 확대나 경제성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힘을 얻어왔다. 그 과정에서 ‘혜택’과 ‘자격’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권력이 정당화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참여 확대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문제로 전환되면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한 적극적 조치(이른바 할당제)는 국가 지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존으로 문제화되었다. (‘그러므로 여성도 성별을 이유로 혜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능력으로 경쟁해라’) 또한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의 확장 속에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등한 지위를 얻고 싶다면 다시 시험을 쳐서 SKY에 입학해라, 정규직으로 입사해라’) 이 과정에서 ‘공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향이 탈각된 채, 능력주의에 잠식되고 있다.

이준석의 ‘돌풍’으로 가시화된 안티페미니즘이 사회문제로 등장했지만, 평등 담론과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안티페미니즘을 정상화, 이용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은 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실제로 성평등 지향 인식에서는 20대 남성/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페미니즘 정서가 강한 역설적인 20대 남성의 조건을 ‘이대남’ 비판으로 흡수되는 것은 바로 그 ‘혜택’과 ‘자격’을 가르는 차별 주체들만의 권한을 제어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해고와 실직, 계약해지를 경험한 20대 청년의 자살율이나 디지털 성범죄, 고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젠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흐름에, 남녀 청년 모두가 직면한 문제에 어떤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세력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차별의 현상, 조건, 구조와 원인 등을 현재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로서 드러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애초의 노동시장이 젠더와 섹슈얼리티로부터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별화 과정(gendering process) 그 자체라는 사실을 폭로했던 수 많은 #미투 운동 속의 여성 대중, 시험을 잘 본다는 능력이 직업능력, 대인관계, 리더십 등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흐름을 거부해 온 청소년/청년 집단, 복지를 통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 가려는 진보적 장애인권운동, 차별과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과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학력이나 학벌, 출신학교나 입직 과정에서부터 촘촘하게 짜여진 위계화된 노동시장의 결과로 이야기해온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들... 아직 충분히 권리를 주장해보지도 못한 이들이 겪는 일상이 보편적인 차별의 모습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으로서 이들의 자리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는 법’,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의 요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운동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거부와 혐오,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만이 아니어야 한다면, 불안정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나이나 학교의 타이틀, 성별로만 인식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

차별은 그저 다양한 집단들 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 자체다. ‘차이’라는 말에서 권력관계가 삭제되고, ‘다양성’이 추상적이거나 중립적인 포섭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의식과 삶이 보편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를 소수자들만 겪는 문제라고 치부하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2021년, 우리 힘으로 평등의 출발선을 세우자

‘국회와 정치권이 언제까지 차별금지법을 회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가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개혁입법과제이자 동시에 현재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의 문제로서 차별금지법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거나 찬성하며 제정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대 양당이 서로를 비판하는 ‘상징’으로서 소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별과 불평등이 모두가 경험하는 일상이라면, 그 일상을 경험하는 이들과 어떤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남아 있다.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큰 일’ 나지 않는다는 말은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흐름은 차별금지법과 평등의 약속이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더 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으고 ‘논쟁’이 가능한 사회적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론장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이 싸움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요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중이 아니라 현재 '지금 당장' 평등을 세우는 과정으로서의 입법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of Korea)은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의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든 전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 현재 총 43개의 단체 및 모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고운	서울인권영화제
규리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단체

(사) 신나는센터,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경남퀴어문화축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어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툴립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3개 단체 및 모임)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b>고 운</b>	서울인권영화제
<b>심기용</b>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b>이호림</b>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b>박한희</b>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

**주 관**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주 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 행** | 2022년 5월 21일

**편집인** | 박한희

**디자인** | 가람

**퍼낸곳**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메일** | [queerforum.kr@gmail.com](mailto:queerforum.kr@gmail.com)

[www.lgbtact.org](http://www.lgbtact.org)

©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

본 책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